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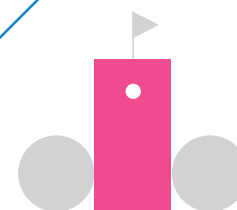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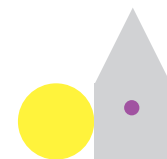
은평

2021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결과보고서

마을

하다

vol.3



목차

마을, 2021년을 함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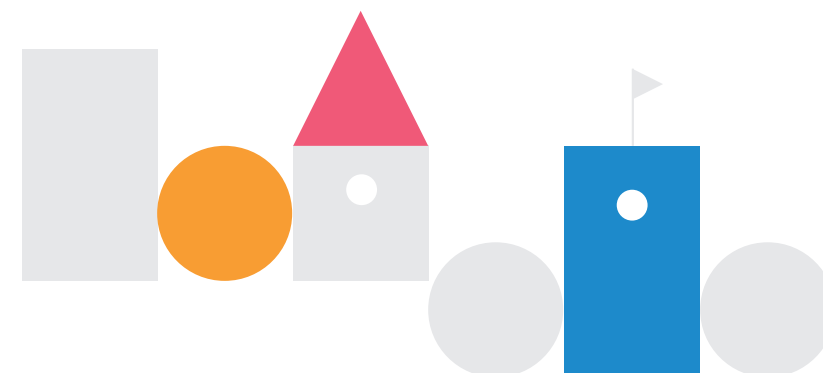
- 06 2021년 학교지원
- 08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활동
- 09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 09 마을강사교육

마을, 학교와 함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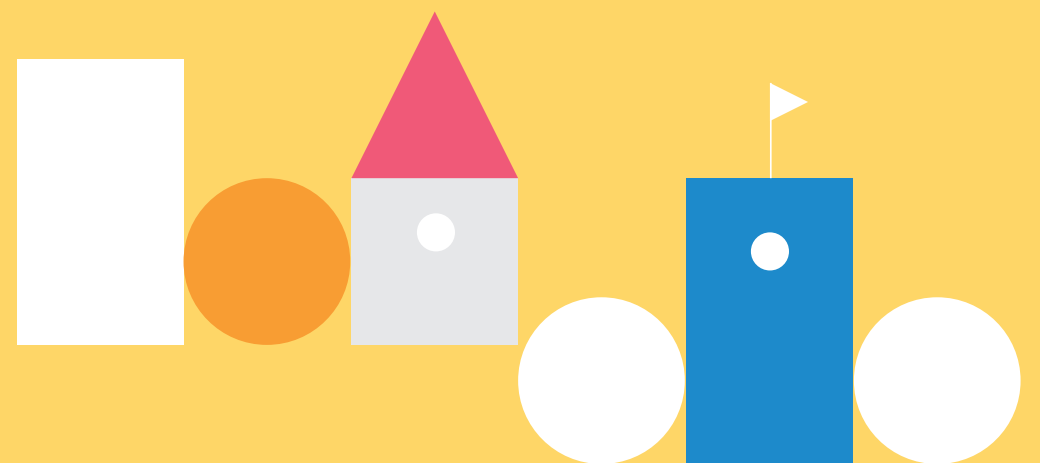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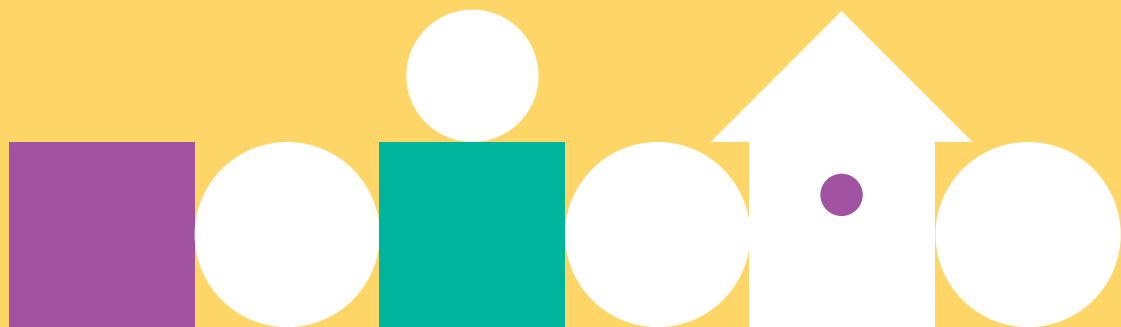
- 12 문화예술체육과 함께하다
- 45 진로체험활동과 함께하다
- 58 창의과학융합과 함께하다
- 66 인성심리정서와 함께하다
- 74 마을, 온학교와 만나다

마을, 2022년을 시작하다

- 82 마을교육에 대한
무한한 상상 가즈아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마무리말
- 84 2022년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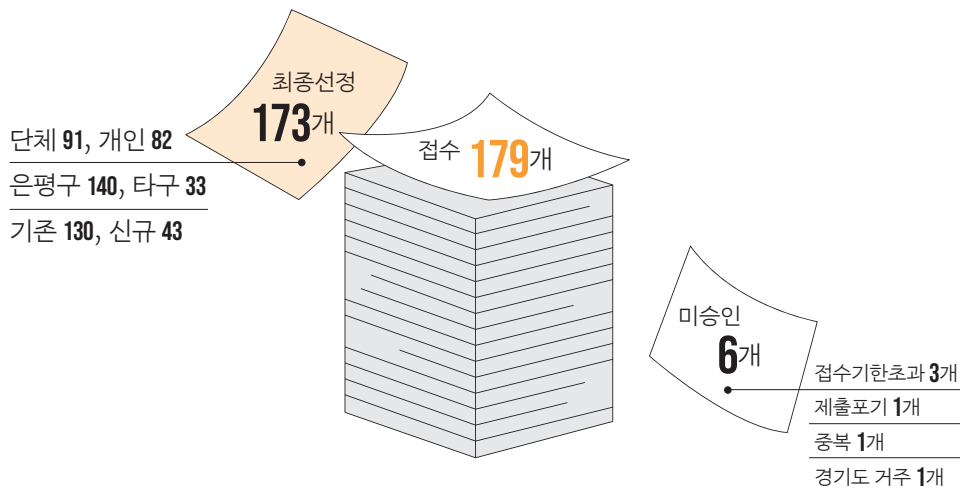
마을,
2021년을
함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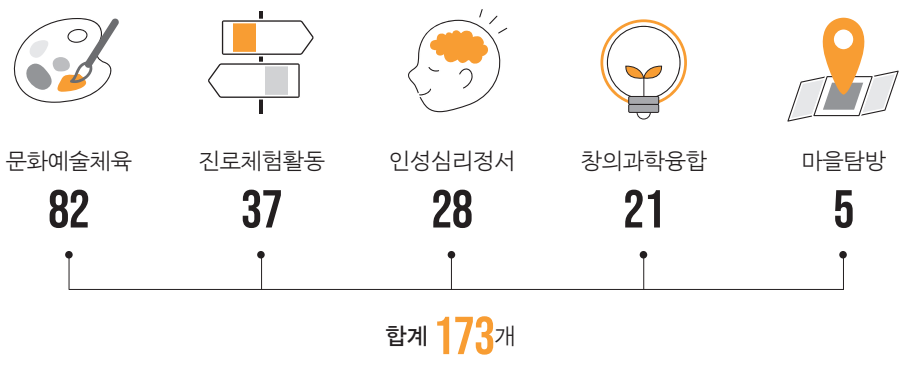
2021년 학교지원

공모 및 프로그램 선정 현황

신청 및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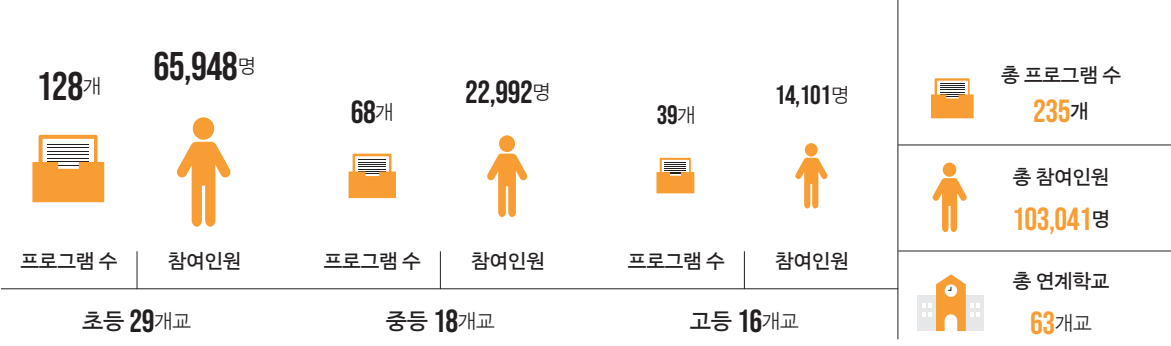


프로그램 영역별 세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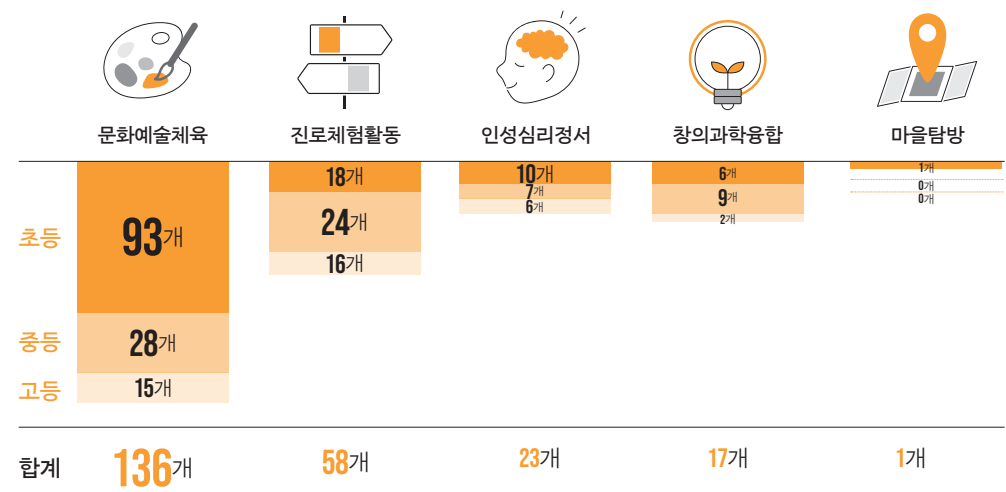
관내 63개교 지원(4개교 미신청)

학교 연계 및 학생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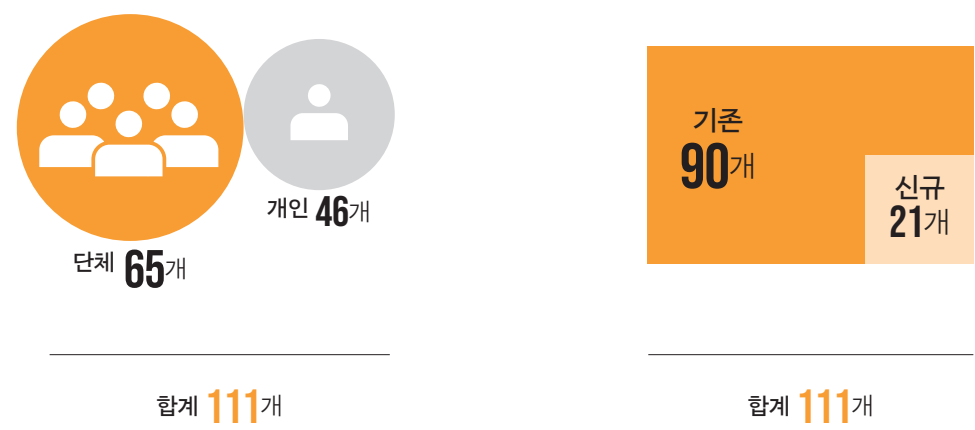
관내 63개교 지원(4개교 미신청)

사업 영역별 프로그램 연계 현황(프로그램 복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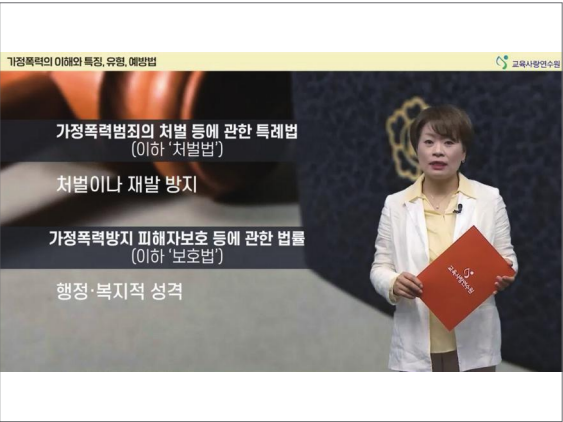


관내 63개교 지원(4개교 미신청)

프로그램 연계 현황(총 235개 / 중복제외 111개 연계)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활동



마을강사아카데미(강사교육)



현장 모니터링



실무협의회



마을강사간담회



마을강사설명회



강사-교사 집담회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마을강사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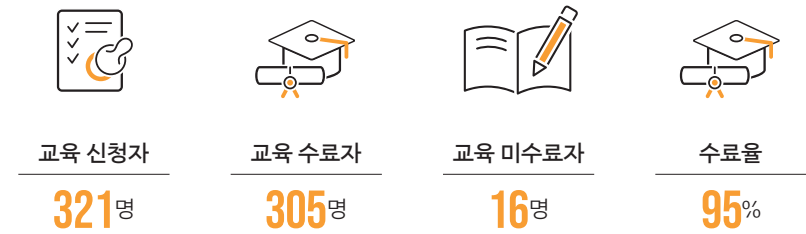
5점 만점



마을강사교육

교육기관 : 교육사랑연수원 (교육부인가 제0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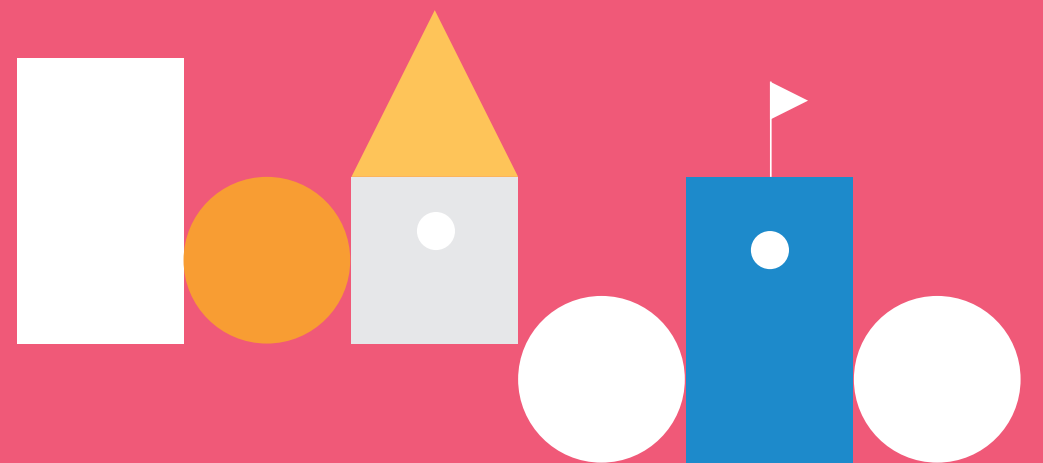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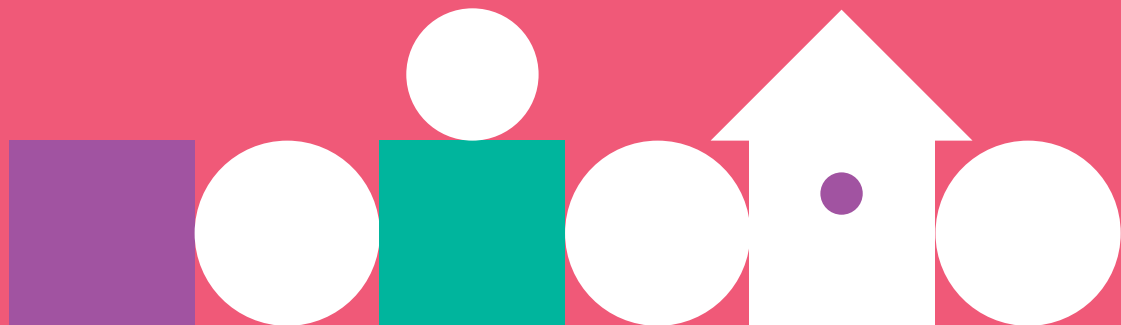
참여 현황



| 차시 | 강의 세부 내용 | 강의시간 |
|-----|---------------------------|------|
| 1차시 |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양상 | 25분 |
| 2차시 | 가정폭력의 이해와 특징, 유형, 예방법 | 25분 |
| 3차시 | 아동학대의 이해와 특징, 유형, 예방법 | 25분 |
| 4차시 | 성희롱의 발생 원인과 판단기준 및 대처방안 | 25분 |
| 5차시 | 성매매의 이해와 청소년 성매매 및 피해자 보호 | 25분 |
| 6차시 |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예방법 | 25분 |
| 7차시 | 장애 패러다임과 장애 인권 및 통념 | 25분 |
| 8차시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시행 방법 | 25분 |

- 01
문화예술체육과 함께하는
- 02
진로체험활동과 함께하는
- 03
창의과학융합과 함께하는
- 04
인성심리정서와 함께하는

마을,
학교와
함께하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음악을 통해 연결을 만들고, 음악안에서 질서와 자유, 음악적인 교류를 통한 심리적 교류로 확장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학교에 자주 오지 못하고 거리두기로 인해 올해 아이들은 조금 더 친구들끼리의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은 듯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노래 부르기를 통해 자기 마음속의 답답함을 목소리 크기로 표현해보자는 제안에 엄청 크게 노래 부르며 후련하다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보람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고르기, 원하는 악기 선택하기와 같은 단순한 선택의 기회에서도 한참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자율성 있는 경험을 많이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큰 틀은 준비되어있으나, 아동중심의 활동이기에 참여하는 아동의 선호나 분위기에 따라 생생한 변화들을 겪으며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유독 할 말이 많은 친구들이 많았다. 쉽게 산만한 아이, 수업에 방해되는 아이라고 단정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 아동들이 오히려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관찰을 동시에 하기에 질문도 많은거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각각의 음들은 다들뿐 옹고 틀리고가 없듯이, 그들의 색깔도 인정되면서 그 아이들도 반 안에서 배재되지 않고 무지개처럼 어울려서 소리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했다. 타악기를 연주하며 신체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고,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이전 교육컨텐츠에서 전환기 프로그램 1회기씩만 했기에 라포형성이 어려웠는데, 4차시 수업으로도 아쉬워하며 만족도조사에 편지쓰듯 정성을 다해 글을 써내려가는 아이들의 마음이 참 감사하고 따뜻하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인 대은초를 처음 만난 느낌은 선생님 한분한분 따뜻하고 친절하셔서 따뜻한 소재인 나무를 접하는 목공과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5학년 2개반 6학년 2개반 같은 작품으로 3차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구의 기본구조와 응용, DIY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자세히 배울수 있었습니다. 은평 교육컨텐츠 연계사업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텐데 아이들과 마음껏 나무를 만지고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은초등학교



대은초등학교는 수업 전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담당 선생님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강사 경력이 꽤 됐는데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효과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업한다고 해도, 첫 수업을 갈 때는 항상 긴장되고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끝날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정이 들어 헤어지기 아쉽고, 결과물 내느라 정신 없고, 뭘 더 해 줄 것이 없었을까 싶고, 기특하고, 안타깝고... 등등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뮤지컬 수업에서 결과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표현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짧은 수업 기간 동안 그러한 행복한 경험을 했기를 바라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자신감의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불광초등학교



불광초는 작년에 처음 인연을 맺게 된 학교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계속 연기되고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올해도 불광초 4학년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길어진 수업기간으로(10회기) 만나기 전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수업전에 4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과 같은 4학년이라도 올해는 1학기에 만나는 아이들이라 친구들이 아직 많이 어리다고 하시더군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달라고도 하셨고 장구를 힘들어하는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 중간에 다른 쉬운 수업도 넣어달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은평컨텐츠 사업을 몇 년째 해오면서 수업 내용이나 제 스타일이 많이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불광초 친구들 덕분에 수업전에 많은 고민도 해보고 다른 시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많은 걸 하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다양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끝으로 갈수록 신나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학교든지 수업 마무리 뒤엔 감동이 있지만 불광초 친구들이랑은 그 감동이 더욱 진하게 오네요.

부디 친구들에게도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2012년부터 참여하게 된 교육콘텐츠 사업과 더불어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릴 적(국민학교 시절) 희망 직업란에 선생님이라고 적었는데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 눈망울이 좋아 더 행복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협조 아래 즐겁게 요가 하는 친구들을 보며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져 마스크를 쓰며, 또 개인위생을 지켜가며 수업에 임하는 친구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중하는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기특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 벗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친구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등굣길에 선생님과 눈 마주치며 인사하던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려본다. 그 당시 선생님들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고 엄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교문 근처에서 선생님을 마주치게 되면 깎듯이 인사하면서도 혹시나 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괜스레 위축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마주하게 되는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일일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따뜻하게 인사하며 교감하고 공감해주는 듯한 모습, 스스로없이 선생님과 눈 마주치며 밝아지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런 모습을 보며 강사들 또한 따뜻해지는 긍정의 마음으로 교실로 향하게 된다.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인지 서신초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라고 느껴졌다. 5학년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로서도 훨씬 생기가 돌고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된다. 아무래도 수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적합한 학년이기도 하고 수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피드백도 빠르고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말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신감에 상처를 받아 오고 있던 시기이고 사춘기로 접어들며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인지 수업을 통해 언급되고 또 직접 느껴지는 감정들에 솔직한 반응이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 같다.

씩씩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간혹 컵을 다루는데 서투르고 절차를 익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건강함이 느껴져 강사인 나 또한 함께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작년에 수업을 받았던 6학년 친구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주어 더욱 뿌듯하고 기뻐다.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본다.



수리초와는 특기강사로 불러주셔서 수업을 시작하여 4년 가까이 인연을 맺은 학교이다. 교육콘텐츠를 통해 소문을 듣고 소고 특기강사로 불러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난타와 장구 등 다양한 특기강사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은평교육콘텐츠 마을강사로 다시금 수업을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6학년 아이들도 지나가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정도가 되어 학교의 전교생 절반을 가르친 듯 하여 말 할수 없는 보람이 느껴진다. 이 학교 저 학교 보따리 강사처럼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의 학생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다 보니 더 연구하게 되고 애착이 가게 되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성격과 기질을 이야기 해주셔서 가르치는 일이 더욱 깊이가 있어짐을 느낀다.

코로나로 인해 2번의 수업을 못하고 마쳤지만 2학기에 남은 2번의 수업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을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지금의 내가 행복하다.



코로나로 등교도 불투명한 3월에 어렵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수색초등학교에서 난타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독립된 음악실에서 잘 구비된 북과 채로 수업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매주 1회 총 10회동안 전통 북을 치며 3학년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 호흡을 맞추며 소리를 모으는 것, 튀지 않고 소리를 맞추는 것 그 자체가 단합이고 협력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 팔이 아프다 여러 가지 불멘소리가 들렸는데 “집에서 연습하고 올래요~”라며 자료를 담임 선생님 통해 요청하는 친구들, 친구들을 이끌며 알려주는 친구들, 앞에 나와 대표로 북을 자신있게 치는 친구들, 북소리를 하나로 맞춰 두드리고 시원스레 북을 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라고 말하는 친구들, 음악에 맞춰 몸과 북의 하나됨을 느끼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을 알려주는 교사가 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려 있고 신체활동이 현저히 줄어 있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이고 흥겨운 수업을 하고자 애쓰니 친구들도 난타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우 즐겁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난타 북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됨입니다. 배운 작품을 서로 도와 하나의 소리로 표현하고 격려하며 경청해 주는 따뜻한 모습이 흐뭇합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더 많은 학생들이 난타를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잊지 않고 신청해 주시는 수색 초등학교 진로 문예담당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은평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에 참여하여 연극아 놀자~! 콘텐츠 수업을 수색초등학교 국어, 창체 연계 수업으로 총 8회 차 수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뿌듯하다.

이번 수업을 돌이켜 보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극을 접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크고 배움의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몸으로 부딪히며 접촉하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아이들이 모든 수업에 흥미를 갖고 연극 시간만큼은 자신에게 집중하여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상상력을 활용하여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할 줄 아는 창의적인 사람에 한발 가까워진 것 같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렵고 딱딱한 수업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를 활용하여 흥미로워 했으며 수업을 하면서 극 만들기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흥미로워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수업에서는 모두가 적극적이었고 연극이란 과목이 어렵고 정답이 있는 과목이 아니고 내가 하는 생각 모두가 정답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낀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번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수업에 참여하고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활동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수한 상황들을 대비하여 비접촉 연극 수업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동료 마을 강사들과 소통하고 역량강화에 힘써야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넘쳤던 부분을 스스로 돌아보고 모두가 만족하고 감사 스스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어울초등학교 방송댄스(or 에어댄스) 수업을 맡게 되었다. 수업 첫날 교실 분위기, 학생들의 참여도 등 첫인상이 정말 좋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 덕분에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다.

다음시간이 매번 기다려졌고 학생들은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된 모습을 보여주어 보람있었다. 주1회 수업이라 습득이 어려울 수 있을거라 예상했는데 복습을 완벽히 해오는 친구들이라 조별발표도 멋지게 해냈다. 학생들이 좋아할 케이팝노래에 쉬운 반복동작으로 에어댄스수업을 진행했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즐겁게 춤추고 운동하는 어울초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과 얼굴 보고 인사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기회가 되어 또 어울초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하는 날을 기다려본다!



학교에서 전적으로 콘텐츠수업을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마음껏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 깊었고 협력이 잘 이루어져 즐거운 수업시간이었습니다.



은평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보람 있던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창의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 주신 연광 초등학교와 선생님, 학생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연광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참여도가 좋아 인상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아크릴 물감으로 실루엣 그림 그리기였는데 동기 유발을 위해 도입 단계에 ppt자료를 통해 아크릴 물감의 특징과 사용방법을 알아보고 밝은 바탕을 배경으로 검은 윤곽이 대비되는 특징이 있는 실루엣 그림에 대해 이론, 작업 순서, 참고 작품 감상 등을 통해 생각을 열고 전개 단계에서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주제 표현을 할 때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는 도입 단계에 호주의 화가인 셸리웨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 작품을 감상하며 재료에 대한 소개와 표현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작품을 감상을 통해 전개 단계에서 주제를 표현할 때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재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작품을 표현하는 활동을 유도하였으며,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 재미있었던 점, 나라면 어떻게 다르게 표현 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완성한 자신의 작품을 보며 즐거워하고 뿌듯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즐겁고 보람차게 수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연광초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서울연신초등학교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수업 개시일보다 2주 늦게 시작한 연신초등학교, 작년의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에서 비대면인 온라인으로 전환한 학교가 생각이 나서 조금은 조마조마하며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 시작 일을 기다렸다.

드디어 첫 수업! 2학년 친구들부터 시작하여 1학년 친구들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처음 계획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마무리가 늦어졌지만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하시는 담임선생님들께서 화상으로 같이 접어주시며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아이들이 더 잘 따라온 것 같았으며 강사인 나는 ‘더 쉬운 언어로 아이들에게 설명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양한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 또한 종이접기를 하며 표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한 회기가 끝날 때마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요?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요.” 등 다음 시간이 기대된다는 몇몇 아이들의 말은 나에게 보람과 힘을 더해 주는 말이며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자는 메시지와 같았으며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준 연신초등학교 아이들이다.

아이들 모두가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가장 기본인 세모 접기도 잘 못 접던 아이가 끝날 무렵에는 기억도 하며 스스로 접기 선도 잘 내며 완성해 나가는 모습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잘 할 수 있어요^^!’하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지만 나 또한 희열을 느끼는 계기가 되어준다. 마지막 시간에 수줍어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아이를 보며 ‘그래 이런 맛에 내가 하지!’하는 마음과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생긴다.

서울연천초등학교



첫 번째 백신 접종 중이던 무렵이어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던 만큼 더 안전하고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친절하게 배려해주시고 관심 주신 덕분에 자칫 위축 될 수 있는 시기임에도 학생 개별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들도 1년여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수업에 익숙해진 터라 잘 따라와 주어서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며 간혹 저의 전공분야를 어려워하거나 흥미가 없어서 아예 관심 리스트에 두지 않는 아이들도 학년이 올라가거나 중·고등으로의 진학에서 활용 할 수 있고,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문화를 즐길 줄 알고 이해 할 수 있길 바라고, 재능이 있는 아이는 그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교육 콘텐츠 연계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풀어 나가고 또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어 좋은 콘텐츠를 많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반 총 5번의 수업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세계의 문화 유산을 살펴보고, 미술적 요소를 활용해서 각자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염병 기간의 시간표로 쉬는 시간이 5분 단축되어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간여행에 참여한 듯 아이들의 집중

도가 좋고 내용면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어지는 작품 활동까지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궁금한 점은 질문하고 다음시간 활동에도 호기심을 보이는 등 지적 탐구심과 활발한 모습이 더 많이 연구하고, 보여 주고, 알려주고 싶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미술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아이도 조금씩 흥미를 보이며 질문하고,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의 시범을 보며 연습도 하고, 다음 시간까지도 관심을 쫓아 이어가는 모습과 매주 점점 더 밀도 있게 파고드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작품에 표현해서 어머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며 사주셨다는 채색도구를 들고 와서 보여주던 아이, 욕심만큼 작품 표현이 안 되서 짜증내던 아이가 지도에 따라 하나씩 단계를 밟으며 결국 스스로 만족하는 완성 후에 보여준 눈물 묻은 성취감과, 프레젠테이션의 설명 속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의 작품으로 완성한데에서 오는 행복한 웃음, 활동 자체를 즐기며 창의적인 활용을 보여주었던 친구들 모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위험한 시기에도 학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신경 써주시고 지원해주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만나서 함께 수업하자는 아이들의 마지막 인사가 마음에 깊이 담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문화의 접근성으로 춤을 통하여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자연과 문화를 움직임으로 경험하며 자신감과 여러나라 문화의 수용성을 키워나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방송댄스가 대세가 된 요즘 처음 세계무용을 접한 아이들은 다소 낯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영화 댄싱 히어로의 OST 중 파소도블레 음악의 진취적이고 투우사의 힘과 용기가 느껴지는 음악에 맞추어 망토를 사용하며 스페인의 투우경기문화와 스페인의 열정, 집시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알고 느낌을 엿볼 수 있게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라이언킹OST로 몸풀기체조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과 아이들의 창의성과 더불어 용기를 엿볼 수 있는 표현시간이었습니다. 마을방과후수업으로 서로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있는, 교육적 연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간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스페인과 세계를 여행하며 지금 이 시간을 떠올리며 세계문화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기를 바라봅니다.



은평콘텐츠로 처음 수업을 하게 된 캘리그래피 강사 이은경입니다.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학교의 협력으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은평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의 눈빛이 해맑았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수업 태도와 즐거움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되고 뿌듯한 수업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매 시간 즐겁게 참여한 은평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힘든 시기 함께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한 수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때만 해도 우리 모두 이렇게까지 장기화 될 것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교육현장은 그 후엔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우리 마을 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아주 익숙한 수단이 되었지만 1년 전부터 각자의 정해진 시간동안 단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우리 마을 강사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기로 한 시기에 과연 온라인으로 만나야 할 것인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당일이 되기까지 노심초사 기다리는 입장인 경우가 많았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온라인으로 전환 되었을 때 속으로는 혼자 살짝 조용히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응암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예산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선생님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나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패키지를 전달해 드리러 학교를 방문했을 때 만나뵐 수 있었던 응암초 6학년 주임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캘리그라피> 프로그램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전달해드린 재료와 강의동영상을 활용하여 매주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아이들의 활동 결과물을 저와 공유해 주시면서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이들은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진행해주시는 각반 담임선생님들과 주임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온라인 진행과정이었습니다.



충암초등학교는 거의 매년 수업을 의뢰 받았다. 식생활교육을 선생님들이 좋아하신다. 학교에 도착하면 오븐 자리를 보고 쿠키를 식힐 자리를 만든다.

충암초등학교는 교실이 좁아서 수업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학교이다. 그래서 담당선생님께 다른교실을 부탁하였더니 회의실을 빌려주셨다. 회의실이어서 책상부터 의자까지 전부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도 좁은 교실보다는 나은 조건이다. 준비를 마치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내려온다. 책상위에 식탁보, 유산지, 토핑재료 등 준비된 재료를 보고 아이들은 호기심이 발동한다. 5가지의 반죽을 나누어 주면서 질문이 쏟아진다. “떡 같아요. 무지개 떡인가?” 일일이 대답을 해주면 수업이 늘어질거 같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강사의 역할은 주강사는 식탁보 깔고 유산지를 나누어주고 유산지에 이름을 쓰게 한다. 보조강사는 오븐을 설치하고 재료를 잘라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면 주강사는 오븐의 위험함을 알리고 안전교육과 먹거리 교육을 한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쿠키 2개는 같이 만들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믿고 자유롭게 만들게 한다.

우리밀과 천연재료로 된 반죽을 설명하고 손과 어깨 목까지 스트레칭을 한다. 집중을 하기 위한 마음열기이다.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지만 쿠키모양을 제각각이다. 수업을 하는 내내 학교 전체가 쿠키의 고소한 냄새로 번진다.

작년에 못했던 2학년들이 내려와서 우리는 작년에 못했다고 아우성이다. 선생님들이 상황을 이해시킨다. 몇 년 수업을 했더니 아는 얼굴들이 있다. 충암은 특이하게 한반에 26-27명 정도 인원이 많다. 항상 보면 담임선생님외에 보조선생님들이 계신다. 주강사는 담임선생님과 보조선생님께 드릴 쿠키 넉넉하게 만든다.

반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반응이 하늘과 땅이다. 그래도 나는 이 수업이 좋다. 눈으로 쿠키모양을, 입으로 쿠키 맛을, 코로 쿠키 냄새를, 손으로 만들기를 기타등등 나름 오감을 만족하는 수업이라 자부한다.



2021학년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에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대면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했다가 갑작스러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수업 직전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널뛰기처럼 예고 없이 바뀌기를 여러 차례 단축수업과 시간변동도 빈번하다보니 계획된 내용으로 제 시간 안에 양질의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았다.

그 와중에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으로 온라인 수업에 내성이 생긴 학생들은 예술프로그램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할 때 특히 더 참여도가 떨어지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이 따라 와 강사로서의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다. 특히나 2학기에 ‘위드코로나’로 전면 등교를 위한 수업이 진행되던 상태에서 교내 확진자의 빈번한 발생과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작품 완성을 앞두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다 보니 평가를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고 마무리를 잘 하려는 마음과 달리 악화된 상황은 원망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은평교육콘텐츠사업은 계획과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의 연속,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불가피한 병행,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학사일정으로 인한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얘기하면 간단히 정리가 될까? 물론 그것이 전부인가 하면 그건 아니다. 그래도 참여 소감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수업은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는 확신이다.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 받으며 성장하고 그 교육의 일선에서 마을 강사가 담당해야 할 몫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시간이 있었다. 정서가 메말라가는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찰나의 순간이 곧 예술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힘들수록 배움에 목이 말라 있는 아이들의 갈증이 눈에 띄어 더

많이 절박하게 그 눈빛에 응답해 줘야 한다는 사명감 또한 높아진 한 해였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사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는 더 가혹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예체능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크고 작은 모든 예술행사들마저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무미건조한 학교생활을 보내게 된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이 아이들이 상황에 밀려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지금, 놓치게 된 수많은 교육의 가치는 훗날 무엇으로 채워 줄 수 있을까?

은평교육콘텐츠 사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익숙해져 가는 강의에 대한 ‘안정감’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지는 것 같다. 마음속 질문을 수도 없이 되내어 본다.

마을강사의 위치에서 나는 아이들의 예술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영향이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식의 강의로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끊임 없는 자기 검열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책임감이 어느 순간 내 어깨를 짓눌러 어느 순간 슬그머니 한 발 물러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다.

올 한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최고는 되지 못했던 시간들 이었다. 여러 변수들이 그러하였고 내가 어찌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도 그 기억들이 다음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도록 해준다면 이 또한 거름이 되어 더 발전된 내년을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러한 희망으로 마음 고생 많았던 나의 한 해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고 싶다.



은평 대성중학교에서 ‘어쿠스틱밴드 신나는섬과 떠나는 세계음악일주, 신나는 여행가방’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나는 여행가방 공연은 그동안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수습여회 방문 공연을 통해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했던 공연이었는데요. 은평 대성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도 만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젬베, 바이올린, 아코디언, 집시기타, 아이리쉬휘슬, 콘트라베이스, 세계의 타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재미있는 리듬과 연주, 동화적 스토리로 엮어낸 신나는섬의 <신나는 여행가방> 콘서트는 ‘여행’이라는 테마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자연에 대한 생각, 자아성찰 등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생각의 실마리를 음악을 통해 풀어내는 취지의 공연인데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마음껏 여행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1시간여의 공연을 함께 호흡하며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마치 해외의 어느 도시에서 이국적 음악과 악기연주를 접하며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함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성중 학생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감성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비대면 유튜브 생방송 공연)으로 진행되어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대면해서 공연을 즐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번에 학생들과 다시 반갑게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1년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으로 덕산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기술가정 정규과정에 목공수업을 하였습니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단계에 맞춰 목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다양한 목공기계가 갖춰진 학교 비품 및 시설 덕분에 학생들은 다양한 작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의 갑작스런 변화에 여러 차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있었으나, 학생들이 접해보기 어려웠던 목공의 이론을 다양하게 공부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면수업 시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활동량이 현저히 적어진 아이들에게 목공작업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동적활동을 많이 제공하고자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공수업을 함께하며 학생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몸가짐과 집중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노작활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스스로 간단한건 톱질하고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생활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목표와 소망을 갖아 봅니다. 열심히 톱질하고 웃으며 망치질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기는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 같은 반이 아닌 다른 반 친구들과 책으로 만남을 여덟 번 가졌다. 처음에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실을 이용해서 나를 표현하면서 더불어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서로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학기 한 책읽기는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자’는 어떤 의지가 담겨있다. 우리의 문학 교육과 독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들리기도 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는 한 책읽기가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읽는 과정으로 한 권의 책을 읽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책을 읽고 천천히 이야기를 탐색하면서 10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내가 직접 만든 질문으로 2명에서, 모둠별 토론을 확대하면서 나와 상대의 생각을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중학생이 된 신학기에는 특히나 낯설고 불편해 누군가와 함께 질문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참여한 친구들은 큰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하였고, 모둠별 토론을 이어 나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한 첫 시간을 보냈지만, 책을 읽기와 친구들과 내가 생각한 질문을 말하고 친구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무르익었다. 세 번째 수업이 지나고부터는 목소리도 커지고 자기가 준비해온 질문으로 활발하게 토론을 하는 광경은 시끌시끌한 책읽기의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책읽기가 혼자만의 행위였다면 정해진 똑같은 책으로 함께 읽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책을 통해서 나의 생각

을 말하면서, 친구들의 다른 생각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진리들이 서서히 정리되어 하나의 가치로 자리 잡는다. 이 활동을 통하여 중학생이라도 책읽기가 가능하며, 책으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후 책으로의 만남을 기대해본다. 청소년기에 경험하기 힘든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라 생각한다.

2기는 5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했다. 학기 중이라 친구들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졌다.

한 학기 한 책읽기(온작품 읽기)는 책 읽는 즐거움을 알고, 책으로 자기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소통하는 시간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질문하기>방식으로 한 책읽기를 마쳤다.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사고력과 발표력이 향상된다. 같은 책을 읽고도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토론 활동을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알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공감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같은 책을 읽음으로 독서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8회기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수업이다.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날 수도 있다. 책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렇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힘든 게 사실이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책읽는 즐거움을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즐거움이 언젠가는 생각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책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작품 속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의도나 배경설정, 사건의 의미를 문맥을 살펴 추론하면서 질문을 만들고, 자신과 사회로까지 연결해서 질문을 던지기를 기대한다. 《휘파람 부는 사람》의 작가, 메리 올리버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다.”라고 했다.



연극 동아리 수업은 다른 연극 수업과 다르게 아주 가끔 만나서 연극공연을 만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다른 수업에 비해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올해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 4회, 대면 수업 6회로 수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수업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연을 완성한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락중학교 자유학년제 패션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자유학년제인만큼 디자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수업이 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디자인 실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한 학생들 모두 굉장한 흥미와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해주었기에 결과물 또한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강사로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패션디자인 수업은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총 8회기 4반을 진행했습니다.

- 1회기 | 디자인 발상법의 이해 및 운동화 디자인 실습
- 2회기 | 패션디자인 컨셉 설정 및 패션콜라주 실습
- 3회기 | 디자인 구상 및 스케치 실습
- 4회기 | 패션 일러스트 작가 소개 및 일러스트 실습 1
- 5회기 | 패션 일러스트 실습 2
- 6회기 | 텍스타일 디자인의 이해 및 파우치 디자인 실습
- 7회기 | 패션 핸드페인팅을 활용한 에코백 디자인 실습
- 8회기 | 패션 핸드페인팅을 활용한 모자 디자인 실습

단순 실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디자인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구성하여 학생들이 더욱 몰입하여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8회기의 수업동안 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서로의 작품들을 공유하며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고 멋지게 진로를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수업이라 아이들과의 소통이 부족해 아쉽지만, 꽃과 식물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잘 따라와 주는 아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같은 재료지만 아이들 각자의 색깔이 들어간 작품이 완성되고, 친구들끼리 서로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2학기에는 더욱 활발한 소통과 배로 즐거운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을 처음으로 들어갔던 중산중학교의 1학년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교사의 설레임과 아이들의 미소 속에 숨겨진 탄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선택은 동화 스토리 뮤지컬이 아닌 듯 가위 바위 보로 저서 왔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뮤지컬의 영상을 보고 감상문을 쓰는 활동인 줄 알고 선택을 했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소개와 간단한 O·T를 통해 직접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극이라는 것을 알고는 아이들의 탄식 소리가 더 커졌으나 개인 시나리오를 받고는 함께 대사를 하고 노래와 안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은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장면이 진행 될수록 적극적인 아이와 소심한 아이들, 목소리가 크게 전달되는 아이들과 수줍어하는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나누어 졌습니다. 나와 맞지 않은 배역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공주님이 남자 친구) 있었으나 최선을 다해 대사와 안무를 익히기 시작하고 외우기를 반복해서 리허설을 통해 우리들만의 미니 공연을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의상을 직접입고 소품을 들고 공연을 하기까지 아이들은 팀 별 친구들과(A/B조로 나눔) 주중에 서로를 쉬는 시간에 만나서 역할

을 연습했고 함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배려하고, 응원하며 돕는 모습을 보이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MR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AR음원에 목소리를 아이들의 목소리를 얻는 것으로 진행을 하던 아이들은 부담감이 낮아져서 대사를 자기들만의 언어로 바꾸는 애드립으로 공연을 더 재미있게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된 친구들은(공연A조, 관객B조/공연B조, 관객A로 나눔)자기들만의 공연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며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 공연자들은 배역에 충실히 공연을 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와 달라는 아이들과 다른 동화 스토리 뮤지컬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아이들,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아이들, 2학년에도 오냐는 아이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는 아이들의 교사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16차시(8회 차시 2회)수업이 보람되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해 주신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선생님들의 응원(중학생들의 공연 능력이 놀랍고 보이지 않는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수고가 느껴진다.)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업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화 스토리 뮤지컬 수업이 재미있게 진행되도록 교사를 잘 따라준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교정이 유난히 예뻐던 동명생활경영고에서의 수업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학교 측 담당자님께서 ‘양금으로 피우는 플라워 케익’으로 주제를 채택을 해주셨습니다.저희 팀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연락을 주셔서 고마움과 반가움이 함께했고 좀 더 정성을 담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금 플라워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콘텐츠와는 달리 도구와 준비가 많은 작업입니다. 잠깐의 체험으로는 맛보기가 쉽지 않기도 하구요. 그래서 사전에 진행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수시로 영상을 틀어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첫 경험에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카네이션을 준비했고 만들어낸 카네이션도 훌륭했지만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게하기 위해 장미를 사전에 짜서 오븐에 구워 카네이션과 함께 어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진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좋은 결과물을 내고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수업에 활력을 주었고 시간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기회가 되어 동명 생활경영고등학교와 인연을 맺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개발에 힘을 기울이며 또다시 만나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1학기는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전교생 2/3 등교로 학급에서 대면수업과 함께 줌으로 수업이 진행 되었다. 공교롭게도 수업일이 1학년 등교가 많아서 2학년 학생들은 주로 줌으로 만났다. 수업은 ppt를 통해 주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비디오로 관련 디자이너의 직업세계 및 작품,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과 학과 등을 보여주었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선택지를 넓혀 주고 싶었다.
동아리 반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어서 디자인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과 진학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00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어느 학과를 지원하면 되는가? 를 묻기도 했고, 자신은 원하는데 부모님은 원치 않는다는 고민도 나왔다. 디자인을 구상할 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고 코칭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쉬운 점은 2학년은 대면수업을 거의 못하고 줌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개인 코칭이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그림을 스케치하거나 알고

리즘을 통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컴퓨터가 디자인하는 세상이다. 기존 제품에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입히는 인문학적인 작업이 중요하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아이디어나 감성은 기계가 대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디자인 작품 발표 시간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주제가 행동디자인이라면, 학생이 “자가 구분 쓰레기통”이라는 제목으로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다시 버리라는 메시지와 함께 물건이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디자인을 발표했다. “이 디자인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분리수거를 잘 하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행동디자인으로 제품화되면 분리수거에 동원되는 인력의 낭비가 줄고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좋은 디자인입니다” 라는 작품 평을 해줍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에 매번 감탄한다. 나도 디자이너 수업은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디자인을 통해 편리하고 실용적이며, 갖고 싶은 제품으로 창조되길 기대하며 설렘을 가지고 학생을 만난다.



코로나 상황으로 밝지만은 않은 학교 분위기!

조심스럽게 방역지침을 이행하고 마을 강사로서 다례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다.

매일이 바쁜 일상으로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을 왜 하는지 인지하지 않은 채로 답답해할까 염려했었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이 차분하게 너무나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여 주었다. 교과시간에 하기는 생소한 프로그램을 교육콘텐츠를 통해 체험활동을 하는 시간으로서, 찻 자리 체험이 학생들에게 우리의 잊혀져가는 예와 서로를 배려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며 수업에 임했다. 낯선 명칭의 다구들을 접하면서 다소 어색할 것 같았던 분위기는 학생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인 수업태도로 임하면서, 전통예절과 다례에 대한 호기심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인사)의 각도와 인사말, 다구를 다루는 방법, 차를 우리는 방법, 오감을 이용해 차를 음미하는 방법(눈으로 색을 보고 코로 향을 맡으며 입으로 맛을 음미), 찻 자리에서 다식을 먹는 이유와 예의, 다식의 크기가 작은 이유, 찻상포인 다포를 걷고 덮는 법, 차나무는 ‘열매와 꽃이 마주보고 핀다.’ 라는 의미의 이름(실화상봉수:實花相逢樹)과 특성 등을 알려주며 어렵고 지루할 것만 같았던 수업을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태도로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갔다.

옛 사람들의 느낌과 기다림의 미학으로 찾을 수 있는 차분한 문화를 통해 올바른 예절을 익힘으로써 조금 더 차분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차의 종류와 그냥 마시기만 했던 우리의 차를 바르게 우려 맛나게 마실 수 있는 지식을 익힘으로써 커피 등 대용차 보다는 우리의 차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예절과 전통 문화 등 잊혀져가는 우리 것과 급하게 흘러가는 시대에 조금 더 여유와 느긋함을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전통예절생활교육이 확대되어 많은 학생들이 품위있고, 기품있는 은평의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예일디자인고등학교 유튜브 채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담당자 선생님 별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발빠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학교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사전 홍보물 디자인 지원이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소장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단체에 대한 애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학교 제작 브로셔를 통해 공연 준비에 마음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콘서트를 많이 진행했던지라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진행된 세미나실의 인터넷 용량의 문제로 중간에 강연 송출이 한번 끊기는 애로사항이 발생, 학생들의 관람에 불편함이 예상되었습니다. 그외에는 호평속에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코로나 및 온라인 콘텐츠가 대세가 되는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은평구내 공공시설(학교, 도서관 등)에 빠른 인터넷 환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잘 마무리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스프링샤인 도예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이나마 치유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숲탐방 생태수업은 자신을 자연 안에서 볼 수 있게 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으로 직접 들어서서 자연과 나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생태적 가치 인식을 증진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업입니다. 이번 구현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거북산에서 진행된 숲탐방 생태수업은 학생들이 과학책에서 보았던 여러 생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동네에서 또 하나의 가고 싶은 곳, 지켜야 할 곳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발한 아이들이라 놀이활동에 적극적이었고 자연현상을 호기심 있게 바라볼 줄 아는 훌륭한 아이들이었다. 🗓️4/19, 3-1 2모둠, 딱따구리

숲의 느낌들을 충분히 느끼고 즐거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4/19, 3-1 1모둠, 도깨비 생태놀이와 미션활동을 통해서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며, 함께 어우러져 노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4/19, 3-1 3모둠, 부엉

숲속의 다양한 생명들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과 관찰력으로 봄 숲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었다. 🗓️4/19, 5학년, 수리

도롱뇽알을 무척 소중히 살살 다루는 어린이들의 생명 존중의 태도가 흐뭇하게 다가왔다. 🗓️4/19, 5학년, 너구리

모든 것에 다 열려 질문과 답을 구하는 데도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데도 순수한 열망들이 넘쳤다. 서로 배려하고 놀이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19, 5학년, 수수

탐방하며 만나는 생물들에 대해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딱따구리 둥지 차지하기 놀이에도 모두가 활발히 참여했다. 🗓️4/27, 4-1 1모둠, 너구리

이끼를 쓰다듬으면서 솜털같다며 루페로 자세히 관찰도 했다. 나무의 일생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고 수고했다며 쓰다듬어 주었다. 🗓️4/27, 4-1 2모둠, 수리

특히 생태탐방과 함께 줍깅을 병행하여 건강한 지구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 활동도 열심히 잘하였다. 🗓️4/27, 4-2 1모둠, 너구리

숲속의 다양한 생명들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과 관찰력으로 봄 숲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었다. 숲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함께 했다. 🗓️4/27, 4-2 2모둠, 수리

루페로 곤충과 알집을 관찰했으며 신나게 동지차지기 게임도 했다. 🗓️4/30, 2-1 1모둠, 수리

촉촉하게 젖은 땅을 밟으며 아이들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비도 맞아보고 날이 개어 나무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숲을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4/30, 2-1 2모둠, 딱따구리

조금은 흐린 날씨라 숲 활동하기에는 더욱 좋았다. 나무가 흠이 되는 과정에 대해 다양한 질문도 하며 관심 있게 관찰하였다. 🗓️4/30, 1-1 1모둠, 수리

계단길을 오르내리느라 조금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것을 보고 느낀것에 뿌듯함을 느낄 줄 아는 친구들이었다. 🗓️4/30, 1-1 2모둠, 딱따구리

6학년 친구들이라 북한산의 옛이름과 산성, 국립공원의 의미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북한산 탐방로의 있는 여러 식물들의 이야기와 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28, 6-1반, 딱따구리

아이들은 마스크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흥겹다. 살아있음 자체인 숲 안에서 발견하고 몰두하고 기뻐하고 어울렸다. 🗓️4/28, 6-2 2모둠, 수수

때 맞춰서 새들도 벌도 꽃도 와주었고 썩어가는 나무들도 만져보면서 살아있는 자연을 온전히 만끽했다. 시간이 짧아 아쉬워 하며 자꾸 뒤돌아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4/28, 6-1 2모둠, 수수

서울연광초등학교



코로나로 학교에서 보드게임이 어려운 시기에 노는엄마협동조합은 1인용 보드를 활용하여 칸막이로 모든 수업이 어려운 학급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림막으로 모든 수업이 힘들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떠돌고 놀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시기에 노는엄마협동조합의 1인용 놀이 수업으로 개발하여 아이들의 놀이권을 충족시켜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 후 아이들은 수업 오는 날을 손 꿈아 기다리면서 몇 번 남았는지 매주 물어봅니다. 담임선생님께 왜 4번뿐이 안 오는거냐며 울먹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가시면서 드시라고 가방에서 작은 젤리를 꺼내주는 친구,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을 배웅하는 친구 등... 밤을 새가면서 선생님들과 새로운 수업을 위해 준비한 결과가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수업이 되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년에 아이들을 만날 때는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리 부대끼면서 즐겁게 수업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인용 수업이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신나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해준 연광초 1학년 친구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신초등학교



‘은평지역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콘텐츠로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자!’라는 생각에서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면서 구체화하고, 또 멋진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인공인 수업이기에, 크리에이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나아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콘텐츠에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충암초등학교



충암초등학교 5학년 진로수업을 처음에는 보드게임 위주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책상에 방역가림판이 있는 상태에서 모둠활동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거리두기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업내용 전체를 개인활동으로 5월에 선생님과 소통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드게임을 하지 않고도 보드게임과 같은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론수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였습니다.

1주차 수업에는 다소 딱딱한 홀랜드 유형과 직업카드150 탐색은 퀴즈, 초성게임, 글자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주차 수업에는 8개의 과거 직업이 현재, 미래 직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알아보면서 미래의 직업 트렌드를 알아보고, 24개의 직업을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과 직업 십자말 퍼즐 활동을 통해 이름도 익히면서 미래의 직업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쉬는 시간 창문과 교실문을 열어 환기 시키기, 카드탐색 전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소독을 수업 중 1회 더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강사로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쉬는 시간 자신의 미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진로강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산중학교



코로나로 인해 작년 수업 때는 아이들도 선생님도 배워가며 적응해 가는 한 해였다면, 올 해는 한층 더 푹망하게 온-오프 수업을 병행하며 능숙하게 자기의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진로 탐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잘 따라와 주었고, 아이들의 주도성에 놀라워하며, 많이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창의체험과 진로탐색을 결합한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해 주었고, 날이 갈수록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관계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과제 수행 능력이 기록으로 남아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오프라인에서는 마스크 넘어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이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사회를 배워가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인관계에 목이 말랐던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에게 경청하며 변화해 가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키워가는 한 학기의 여정이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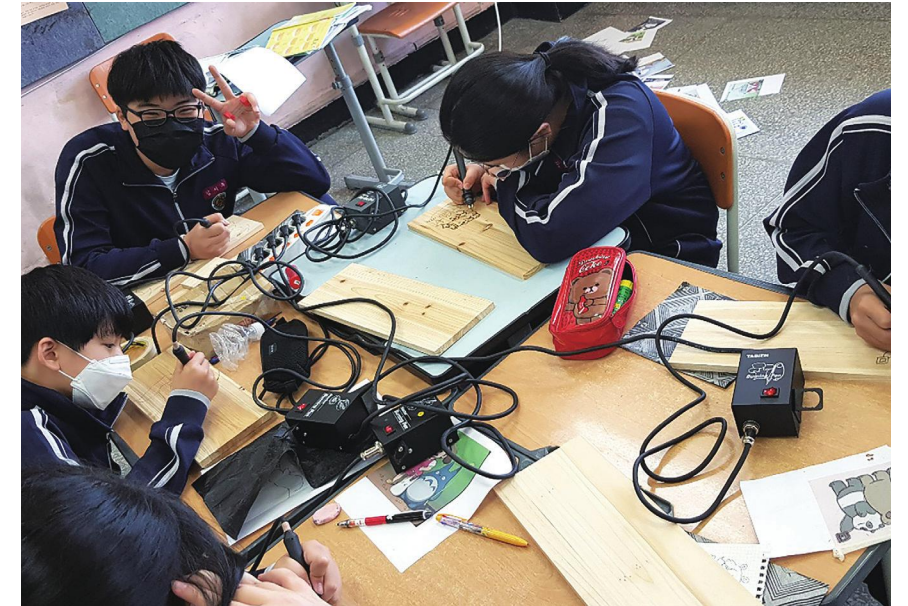
마을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소셜 미션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환경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창업, 창직 등 확장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짧게 만나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어서 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콘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 덕분에 작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상신중학교에서 올해도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온/오프라인을 혼용하면서 진행되어 학교나 학생 모두 힘들었을 테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되었기에 학생들과의 스킨십이 많이 늘어서 좋았습니다. 자유주제를 기반으로 한 팀 과제 영상 만들기 때는 저도 직접 참여하여 출연도 하며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미디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 내고 청청과 함께 성장할 친구들을 몇몇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결과물이 좋게 나왔기에 올해 상신중도 잘 마무리되었고 기회가 또 된다면 내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도 항상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서중학교는 벌써 몇 년째 연을 맺고 있다. 1학년 부장선생님이 2021학년도에도 수업해달라고 하여 즐거운 맘으로 학교에 갔다. 주제 선택이니 여자아이들이 많겠지 하는 마음으로.

반 배정을 보고 코로나로 인해 학생 선택 없이 한 반이 진행을 한다고 하여 조금 놀랐지만 이해가 되었다. 중학교 수업시간이 줄어들어 조금 일찍 교실에 갔는데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의 양해를 얻어 조금 일찍 수업을 시작했다. 처음 접하는 버닝기에 많이들 신기해하고 나무를 파면서 태우는 친구도 있었다. 흥미롭고 천진하면서 장난기 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웃게 한다. 다니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사실 나도 그 나이면 하고 싶었을 것이다.

도안을 주고 버닝을 시작하니 아이들은 조용히 집중하였다. 쉬는 시간에도 나가지 않고 나무 태우는 작업에 열중하였다. 1차시, 2차시 지나면서 조금 다른 버닝을 해보았고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시간이 모자라 종례도 조금 늦게 한 적도 있지만 아이들은 불편해하지 않고 해 주어 감사했다.

스트링아트에 망치질도 어렵고 실감기도 어렵지만 작품이 완성되었을 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해 흐뭇했다. 평가시간이 모자랄 만큼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고맙고 그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선일여자고등학교



선일여고의 경우 수업 진행형태가 1주 대면수업, 1주 온라인수업(실시간)으로 구성되어 실습을 위한 학생들과 피드백이 많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담당 선생님께서 강사의 사전 수업공지와 과제를 미리 듣고 학생들에게 지시를 한번더 해주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유기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편안하고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선생님께서 영상촬영을 위한 촬영장소 3곳을 미리 빌려두시는 배려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영상촬영을 하고 바로 수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촬영시 3곳을 담당 선생님, 주강사, 보조강사가 입회하에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꿈많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미래의 나의 직업 소개하기”라는 공통 주제를 제안했고, 3분 영상제작을 위한 썸을 3개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수업을 재설계하였고, 직업을 이해하기 위해 “#1 나는 왜 OO일을 하고 싶은가?, #2 미래 OO직업의 모습 표현하기, #3 OO직업을 갖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로 각 썸을 세분화 하여 촬영 일정과 촬영팁을 제안했습니다.

#1 나는 왜 OO일을 하고 싶은가? 의 경우는 30초~1분 인터뷰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일에 대해 진솔하게 말해보는 시간을 영상

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보내온 결과물의 경우는 얼굴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까만 화면처럼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고 목소리만 들리도록 촬영하여 메일로 전송되어 학생들에게 개별로 답장을 달아주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2 미래 OO직업의 모습 표현하기의 경우 미래의 직업이 상상의 직업이라 하더라도 직접 상황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상황극 표현) 연출샷 30초~1분 영상을 촬영하도록 제안 하였습니다.

#3 OO직업을 갖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의 경우는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원하는 미래의 OO일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통해 직업의 의미를 스스로 알아가고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길이를 표준화 하여 30초~1분 영상 촬영 학생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니 영상편집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 영상제작 수업을 계기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실기수업이 많은 영상제작 과정 수업을 온라인(줌)으로 진행하다 보니 교사와 강사가 유기적으로 제어권을 변경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어플을 설치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기의 접속을 시도하여 온라인상에서 어플을 학생들과 직접 확인해 가며 수업을 진행하여 보다 수업의 효율을 높이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정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발고 활동적인 느낌 자체였다. 한 교실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조금 낯설었던 첫 시간이 기억이 난다. 2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며, 1학년 친구들은 줌으로 실시간 교육으로 현장을 느끼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 3월부터 시작된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실습과 이론을 겸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수업진행이 어려운 중에도 단비 같은 시간들이 주어져 실제 대면을 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 대응단계가 높아져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름 하나하나가 더 정겨웠던 기억으로 남는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대답하며, 궁금한 것들은 묻고 또 물으며 수업을 진지하게 듣고 실습하는 친구들이 덕에 실습 교육 진행이 수월하고 체험 교육 전달에 있어 더 진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생명의 소중함과 ‘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무게감’ 심폐소생술의 의미 나의 행동 실천이 미치는 영향까지의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학교생활을 함께 있어 우리 반에 알면 좋은 생활안전이야기를 구성해 보며 수업을 진행을 하였다.

직접 교구를 이용한 체험 활동으로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각 차시의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위기

상황 판단과 상황 대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 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심장충격기사용에 대한 용어나 예시에 어울리는 상황, 정보 등에 대한 실제 상황을 영상 활용 교육으로 이해도가 빨랐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만나는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해준 친구들과 함께한 학교안전 7대 영역 문제풀이와 정답을 맞춰보며 잘못 알고 있었던 안전 정보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안전 정보들도 공유하며 안전 교육의 의미와 정보에 대해 많은 대화와 친구들 간에 ‘생명 살리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해당 7대 영역에 대해 각각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반 별 또는 친구들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손’ 안전한 우리 교실 만들기에 ‘생명을 살리는 손’ 동아리 친구들이 안전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슬기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라는 응원을 함께 해본다.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1학년은 2021년도부터 남녀 공학이 되어 남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의 관심도 높았고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남학생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 수업 또한 커리큘럼에 따라 잘 진행되었습니다.

2학년은 여학생들로, 남녀가 함께 수업 한 1학년보다 피부와 화장품에 대해 관심이 많아 더욱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본인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교육을 진행한 저희 또한 보람차고 즐겁게 학교 수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째 은평메디텍고등학교는 교육콘텐츠로 제과제빵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리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15명 전부 조리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도 조리과 학생들의 참여가 많아서 조별 인원수도 적게 하고 학생들에게 자격증 및 본인의 적성 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교육콘텐츠 수업이 중도에 못 하거나 아예 수업을 못 한 학교들이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해 은평메디텍고등학교는 일찍 수업을 시작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질수록 식생활이 간편하고 서구화되어 빵을 먹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빵이 주식이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식으로서도, 디저트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며, 그런 면에서 제과제빵 기술자의 수요도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제과제빵에 적성이 맞는 학생들은 이번 교육콘텐츠 수업을 통해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느 기술이건 마찬가지지만 제과제빵 기술은 처음에는 적은 급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급여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창업할 수도 있으며, 또 한 강사로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진로 방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콘텐츠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따른 본인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몇 번의 중단과 보충으로 12월 중순 사업 마감에 맞추어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블록코딩 프로그램 엔트리와 햄스터 로봇을 이용한 피지컬 코딩 수업까지 36차시 진행되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교육이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많았고 테스트해야 하는 준비사항들도 많아서 수업준비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앞에 배운걸 응용하여 새로운작품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을 할애한 만큼 아이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차곡차곡 받아들이는 모습이 감동스러웠다. 쉬운듯하면서도 어려운 게 코딩이다.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선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만 하는데 사고하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빔프로젝트 화면이 뒤쪽 친구들에겐 잘 보이지 않아서 코딩 소스를 인쇄하여 나누어주다 보면 코드만 따라서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혼자서 만들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생각한 바와 같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려는 것이다.

엔트리는 최근 리뉴얼이 되었다.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어 재미있어진 부분도 있지만 가끔 오류도 발생시켜 수업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엔트리 사이트 회원가입과 학급가입, 토끼와 거북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반복문, 조건문, 신호, 변수의 기본기능을 이용한 재미있는 달리기게임, 빙하피하기, 엔트리봇런게임 등을 만들어 보았다.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웹캠 등의 준비물이 필요했고 학교측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무

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햄스터 로봇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앞으로 뒤로 이동 및 돌기 등 기본 기능들을 이용해 보았고, 근접센서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바닥 센서를 이용한 검은선 안에 가두기, 밝기센서를 이용한 정지, 실과 키트를 이용한 강아지 로봇과 청소로봇을 만들어 보았는데 청소로봇은 아이들이 무척 귀엽다며 재미있어하였다.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태블릿으로 조정되는 축구게임을 시도하였으나 무선 인터넷 환경이 원활치 않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대의 햄스터 로봇을 인식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아 축구경기는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구경기를 시도해 보았다. 스스로 엔트리에서 코딩한 소스를 이용하여 축구경기를 해볼 수 있도록 미니 축구장을 만들어 1:1 또는 2:2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함성을 지르며 즐겁게 경기를 진행하니 보는 사람도 즐거워졌다.

단체 댄스와 노래, 그림 그리기 등 햄스터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에 아이들은 작고 귀여운 햄스터 로봇에 더 폭 빠져들며 귀여워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긴 시간의 수업이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작업은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기존의 다른 수업도 짧지만은 않은 과정이지만 기능만 배우고 끝나는 느낌 많았다면 이번 수업은 장시간의 다양한 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코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고, 이해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서 어느 때 보다 보람 있었다. 특히 햄스터 로봇을 엔트리와 연결하여 피지컬코딩을 하는 과정은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하는 나 자신도 즐거웠다. 여러 모로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이었다.

서울신도초등학교



2020년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히 수업 연계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같은 학교에서 또 다시 연락을 주셔서 수업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보조강사가 있어야 하지만 강사료도 학교에서는 지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조강사 없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해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콘텐츠보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했더니 학생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작품은 만들었고 만족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수학 좋아하는 학생 손 들어 볼까요?” 라는 질문에 역시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지만 수업 중간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하면서 작품 만들기에 오롯이 온 신경을 쓰는 아이들 덕에 웃으며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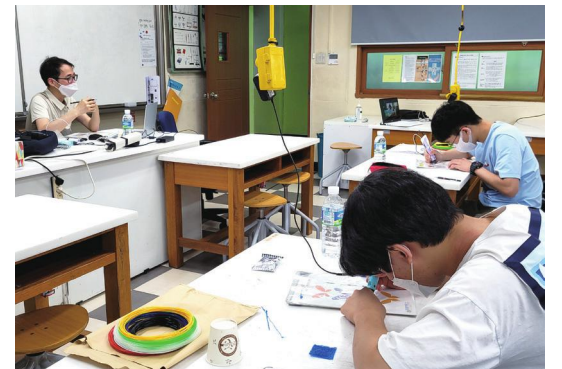
저의 학창시절과는 달리 학생들이 손으로 하는 조작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일일이 세심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작년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까 하는 연구는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저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아이들과 재미있는 수학 공예 수업이 되도록 더 연구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학교에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직 사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수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 때문인지 아직은 많이 연계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제가 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도록 미래의 직업과도 접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의 많은 강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신 은평 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및 관계자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성중학교



“나도 3D펜 디자이너!” 라는 타이틀로 힐링하우스 단체에서 이천기 주강사로 대성중학교에서 2021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7회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넘치는 열정이 좋아서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와서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1회기에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현재 산업사회에서의 3D프린팅기술을 알아보았고 2회기에서는 3D펜의 작동원리와 디자인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3D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도안을 디자인하려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3회기 수업에서는 “반지”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도면을 그린 후 3D펜으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 5회기에서는 기본도안 디자인을 활용하여 나비, 이름표를 디자인 후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하여 장식하는 표현기법으로 디자인을 성형하였습니다. 이때는 프린팅의 기본기가 다져지는 시기로 학생들의 집중도가 날로 높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나비 조형에 본인의 이름을 각인하고 감상하는 시간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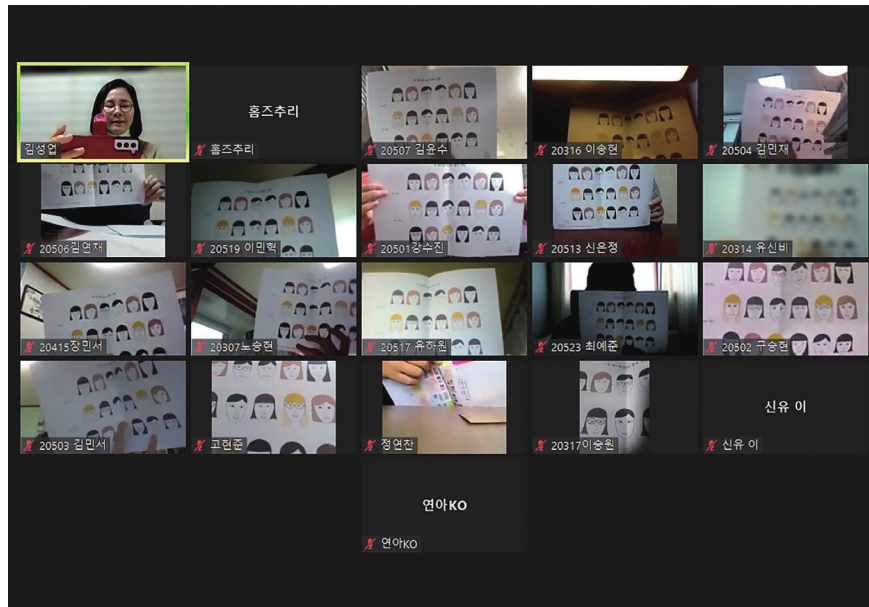
6회기에서는 꽃의 기본도안을 가지고 2D도안을 3D입체물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여 3차원 입체물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프라인에서는 수업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3D펜을 집에까지 대여하여 주어서 재료와 도안집 3D펜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외의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연구와 창작활동에 필요한 환경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택트 수업을 하여서 모두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표현기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모두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7회기에서는 종이컵 홀더를 디자인하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평면이 아닌 곡선 면을 따라 도안을 디자인 후 출력하는 방식으로 문자나 패턴, 그림 등 다양한 주제로 성형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3차원적인 공간을 그리고 스케치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하나씩 제거하고 기능적인 이나 예술적인 공간도 연출하면서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에서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 사용해 보면서 장단점을 발견하고 다시 수정하여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점차 발전해가고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3D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표현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기술을 본인의 재능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미래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3D펜 디자이너! 라는 제목처럼 디자이너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4차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생들과 만나야 그것이 빛이 발하게 되는데,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이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일일이 학교에 수업을 소개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어주어 프로그램 개발과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은평구에서 선정된 프로그램 중에서 고르게 되므로 믿을 수 있고 편리할 것입니다. 전환기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수업콘텐츠 개발과 강의를 연구하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홈즈추리클럽'을, '추리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보게 해준 계기가 되었기도 합니다.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서 몇몇 학교들이 진로 수업으로 의뢰를 해서, '추리'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고, 추리게임을 하면서 추리와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등 진로교육에서의 추리게임의 가능성을 보게 해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업콘텐츠 개발과 강의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매칭된 상신중학교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뚝뚝뚝뚝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했는데 첫수업에서는 ID도 만들어 본적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자판이 익숙하지 않아 고생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수업회차를 거듭할수록 블록코딩과 앱만들기 위한 디자인에 흥미로워하고 스스로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디자인 해 보고 바로 핸드폰으로 실행해서 확인해 보고 최종 완성하여 잘 만들어 졌는지 확인해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줄 수 있도록 QR코드를 생성하고, APK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을 신기해 했습니다. 팔레트에 있는 각 기능들을 하나씩 사용해 보고 블록코딩에서 어떻게 코딩하느냐에 따라 실행이 되는 것을 알아가니 앱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도가 높은 게임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실행시간과 점수에 대한 것도 함수로 만들어 점층적으로 실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 했던 것은 음성변환을 사용한 앱이 었고 음성을 추출하는 법과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상신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1학기 수업을 담당선생님과 지도선생님과 함께 잘 마칠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첫해부터 참가한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으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버렸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여러 학생들을 만나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도 많이 보냈다.

초등학생이 졸업해서 중학교에서 다시 만나기도 하고 아들의 친구들도 만나보고 학교를 옮기신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에서도 만나기도 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지만, 강산은 그대로인데 사람들만 변한 것 같기도 하다. 매년 하는 교육이라 어려움은 없었지만 최근 2년간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 교육 자료도 많이 바뀌고 체험도 여러 가지로 시도하여 교육의 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개인의 발전도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부분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번 대성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특별하게 많은 준비하여 학생들을 만났다. 우수한 학교의 장비(천체망원경)들이 훌륭했고 또한 선생님들의 많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된 시간들이었다.

비록,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업 시간 등이 취소, 연기가 되어 정해진 날짜들이 변동되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참가해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대성고와의 인연으로 천문동아리의 재창단도 시도되어 더욱,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미래의 주역들에게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한 부분에 내가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훗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우선 코로나상황에서도 대면수업 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업초반에는 4단계도 아니었고 송실고등학교의 학생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장소, 멀티탭 등)으로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안을 따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려와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고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친구들에게 주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각 반마다 아이들의 분위기와 성향이 달라서 나오는 작품도 달라서 느낌도 새로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며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권의 그림책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림책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꿈꾸는 삶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꿈꾸는 그림책 공작소 프로그램은 특별히 특수학급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그림책과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지 정서 융합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구현초 특수학급의 아이들과 매주 월요일 13주 동안 그림책으로 즐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구현초 특수학급 아이들과 그림책 수업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동안 귀여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3학년이던 ○○는 이제 5학년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다시 만난 날 그림책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예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행복하게 빛났습니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일반 학교 수업과 다르게 오직 특수학급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들과 함께 읽을 책의 북트리도 만들고, 홀로그램 마스킹테이프로 우체통 파일도 만들고, 나만의 독서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터널북, 내가 살고 싶은 집, 열기구, 꽃부채, 곤충 액자, 곤충 장난감, 에코백, 새피리, 팔찌, 나만의 LED 정원 만들기 등 아이들에게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양한 소재로 독후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매주 아이들은 그림책 수업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이 수업에서만큼은 무엇보다 진정한 수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자신과 친구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13주 동안 아이들은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아이들과 환상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신 구현초 특수학급 세 분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민관학이 만나서 모두의 노력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수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은평의 아이들이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상신초등학교



상신초수업을 시작 하면서 현재의 상황들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6학년 부장님과 사전 미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의욕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약해서 걱정이란 말씀에 체력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올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첫날~ 6학년들이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순수하고 안정되어 있었고 집중을 하면서 임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6회기를 하면서 체력 한가지라도 향상을 시켜서 스스로 자기몸을 관리할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주자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수정하면서 학생들 현실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코로나로 작년에 학교를 많이 오지 못했던점이 오히려 학교와 친구들을 갈망하고 애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몸은 확실히 작년부터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시국이라서 그런지 몸들이 많이 굳어 있었고 근력도 약해서 조금만 강도를 높혀도 많이 힘들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내려고 하면서 체력지수(유연도, 근력, 근지구력)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대견하고 보람이 컸습니다.

6회기를 마치면서 담임선생들께서 학생들에게 감사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시키시는데 마음에 뜨거워지고 내가 하는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학교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확실히 담임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고 성실하게 참여해서 성취감도 올라가고 주어진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좋은시간을 통해 함께 성장할수 있게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리고 상신초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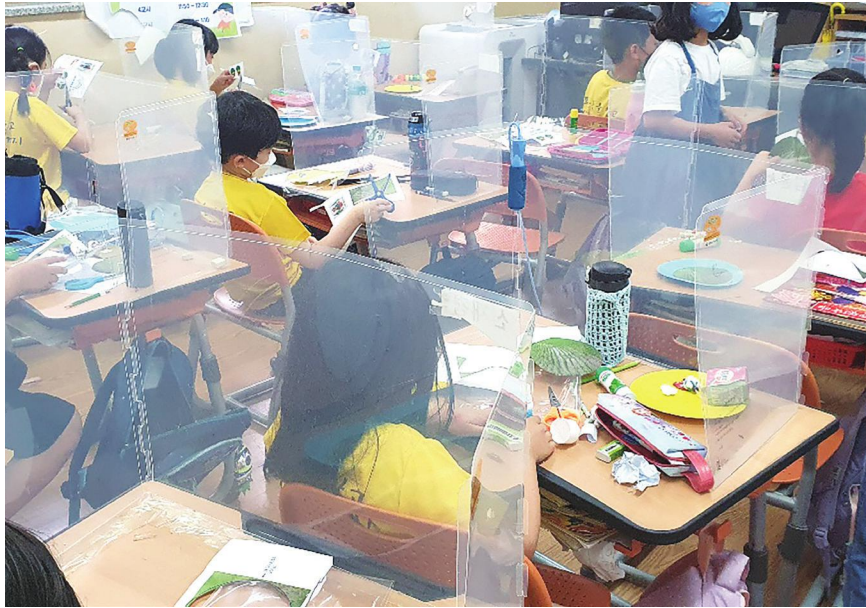
서울서신초등학교



지난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서신초등학교 수업이 올해는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을 만난다는 많은 설렘과 기대를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교실에서 만난 3학년 학생들은 매시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림책을 함께 읽고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며, 때로는 예술가가 되어 너무나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 서신초등학교 교내 계단과 복도 등 많은 공간에 전시되고 있는 멋진 예술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다루었던 화가 마티스와 빈센트를 학생들이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선생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신도초등학교



그림책을 들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에게 그림책의 매력을 알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림책의 매력을 느끼고, 그림책의 매력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책 읽는 아이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읽어주는 그림책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책을 읽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속에서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진행하는 여러 활동들은 아이들에게 무척 즐거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개성 있는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은 더 없는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목소리가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은평교육콘텐츠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의 순수함과 음악에 대한 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인스틱, 윈드차임, 자일로폰, 메탈로폰, 공명실로폰 등 새로운 악기들을 보며 반짝거리는 눈빛과 연주의 의지를 불태우던 학생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악기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흥분하기도 하고 연주가 시작되면 틀리지 않고자 몰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마지막 회차 시, 윈드차임을 그룹에서 혼자 연주하는 솔로악기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친구들마다 윈드차임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강한 체격의 남학생들도 윈드차임 연주를 할 때면 차분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윈드차임은 아름답고 청명한 소리가 나는데 악기가 가진 아름다운 소리를 헤치지 않고 연주하고자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연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주는, 악기가 주는 느낌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연주구조에서는 굉장한 에너지로 폭발적인 연주를 하다가 자유연주부분이 끝나면 다시 합주보의 연주로 적절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주어진 음악적 구조 안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조절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자유학기제 세계시민교육으로 충암중학교 1학년 5반 남학생, 10반 여학생들과 17회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줌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나 단계별 이해도는 매우 높아 항상 다음 수업자료와 활동을 더 준비했던 것이 기억에 선명합니다. 수업 첫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이 점차 마을 공동체의 문제와 세계 이슈의 관심으로 이어져 창의적이고 진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여줘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를 판게아 따로또같이 보드게임과 세계시민 패스포트, 문화퀵트 이야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접해보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었다는 소감은 준비한 보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온라인 진행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활동지를 담당선생님께 부탁하여 저에게 전달해준 학생과 자신이 작성한 과제를 놓고 와서 보여주지 못 해 아쉬워하던 학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나옵니다. 항상 매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담당선생님과 끝나는 시간 정리가 좀 늦어도 따뜻한 미소로 기다려주시던 담임선생님도 오래도록 기억날 것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이 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인재라는 거창한 의미보다는 자구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 실천이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는 드림온의 세계시민 교육철학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뿌듯했고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도 다짐합니다. 끝으로 순수하고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송실고등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마다 만나서 동아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5명과 동아리의 특성상 학생들과 만들어가는 수업을 위해 첫 만남은 그림책 <틀려도 괜찮아>를 읽고, 자신의 별명,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책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소개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동아리 수업에 바라는 점 등을 말하며,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아리의 방향을 이야기했으며, 마침 동아리 하는 날이 4월16일 세월호 7주기여서 함께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10회기에 걸쳐 서로 조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활동(커피박 화분에 반려식물 심기, 에코링크 보드게임, 버려진 그림책을 작품으로 만드는 팝업북 만들기 작업)을 하며 우리가 당장 할 일을 모색해 보며, 위기에 처한 지구를 위해 기업(진로, 펄시콜라, 매일유업)에게 우리의 요구를 편지에 써서 전달도 해 보고, 학교 안에서 에코챗솔을 나누어 주는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아프가니스탄, 난민, 코로나 19 등 기사를 통해 인권의 눈으로 세상 이야기를 하며, 인권감수성을 높아졌으리라 생각하며, 차이와 차별, 평등, 먼지차별, 미디어로 성차별 분류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마무리로는 그동안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나는 기다립니다> 그림책을 감상하고 우리들만의 그림책 만드는 활동을 통해 밝은 미래를 이야기 하며 동아리 수업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학기 중간에 동아리 수업을 마무리 하게 되어 좀 아쉬웠지만 작년과 다르게 비대면 보다는 대면 수업이 많아서 많은 활동과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학생들의 평가 또한 일주일에 한번 50분 수업이지만 매주 만나서 연결된 작업을 하게 된 점 그래서 기후 수업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조사 하고 토론하고 활동하고 캠페인까지 할 수 있었던 점을 좋았던 점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 학교명 | 프로그램명 | 단체(개인)명 |
|--------|--|-----------------|
| 서울갈현초 | 실과 바늘 이야기 (건강! 나를 지켜주는 손바느질) | 바늘한땀협동조합 |
| | 신나게 DO! 자존감 UP! - 보드 & 컵쌓기 | 메타인지센터 |
| | ‘잼스틱’과 함께하는 타악기 교실 | 서울심포닉밴드 |
| 서울구산초 | 창의쑥쑥 Fun Fun!! 공예 놀이터 | 손미연 |
| | 신나게 DO! 자존감 UP! - 보드 & 컵쌓기 | 메타인지센터 |
| | 감성글씨캘리그라피 | 예미담 |
| 서울구현초 | 리듬 스트레칭 & 댄스 | 최희성 |
| | 방송댄스(or 에어댄스)와 성장프로그램 | KTOPDANCE |
| | 덩덕쿵 우리가락 | 어울림공연 |
| | 소고치며 춤추며 열쑂 | 예술꽃씨앗들의몸짓 |
| | 숲에서 크는 아이들 | 나학주 |
| | 꿈꾸는그림책공작소 |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
| | 밴드스트레칭 & 요가 | 윤미숙 |
| 서울녹번초 | 풍선과 클레이 콜크랑 놀자 | 열린교육문화협동조합(최문선) |
| | B.T.S.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Board/Traditional game/Stacking) | 노는엄마협동조합 |
| | 나도 디자이너 | 소망진로상담센터 |
| | 신나는 연극놀이 교실 | 극단은평 |
| | 봄웨커로 봄!봄!! | 김경민 |
| | 저학년을 위한 동화뮤지컬 | 홍승희 |
| | | |
| 서울대은초 |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락 열쑂! | 정종숙 |
| | 꿈지락 토탈공예 | 꿈지락 토탈공예 |
| | 내 맘대로 DIY 목공교실 | 아이목수공방 |
| | 저학년을 위한 동화뮤지컬 | 홍승희 |
| | MusicTalk(뮤직톡) | 최나리 |
| | | |
| 서울대조초 | 리듬 스트레칭 & 댄스 | 최희성 |
| | 밴드스트레칭 & 요가 | 윤미숙 |
| 서울북한산초 | 마을 숲, 오감을 깨우는 자연놀이터 | 물푸레생태교육센터 |
| 서울불광초 | 키가 쑥쑥! 신나는 음악줄넘기 하나, 둘, 셋, 넷 | 황규원 |
| | 소고치며 춤추며 열쑂 | 예술꽃씨앗들의몸짓 |
| | 얼~쑂! 신명나는 사물놀이 | 송은경 |
| | 미술관 속 코딩 ‘나는야, 코딩 아티스트’ | 김은희 |
| 서울상신초 | 창의 쑥쑥! 미술공예 | 어나더메이크 |
| | 몸튼튼! 마음튼튼! 뇌튼튼! 행복놀이!!! | 박수인 |
| | 신나게 DO! 자존감 UP! - 보드 & 컵쌓기 | 메타인지센터 |
| | 흙으로 꿈을 빛다 -도자기공예- | 토몽 |
| 서울서신초 | 성장테라피요가&명상 | 김선주 |
| | 흙으로 꿈을 빛다-도자기공예- | 토몽 |
| | 생각이 자라는 책놀이 | 김연정 |
| | 수학운동회와 미술과학의 만남 | 에듀통합동조합 |
| | 신나게 DO! 자존감 UP! - 보드 & 컵쌓기 | 메타인지센터 |

| 학교명 | 프로그램명 | 단체(개인)명 |
|-------|--|--------------------|
| 서울서신초 |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 | 조윤정(마을공동체“채”) |
| | 편편아트 | 이정혜 |
| | 탁구 | 김명준 |
| 서울수리초 | 기초부터 배우는 블록코딩(엔트리) | 김윤월 |
| | 목공놀이터 | 문윤숙 |
| | 얼~쑂! 신명나는 사물놀이 | 송은경 |
| | 소고치며 춤추며 열쑂 | 예술꽃씨앗들의몸짓 |
| |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락 열쑂! | 정종숙 |
| | ‘잼스틱’과 함께하는 타악기 교실 | 서울심포닉밴드 |
| 서울수색초 | 소고치며 춤추며 열쑂 | 예술꽃씨앗들의몸짓 |
| | B.T.S.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Board/Traditional game/Stacking) | 노는엄마협동조합 |
| |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 | 조윤정(마을공동체“채”) |
| | 얼~쑂! 신명나는 사물놀이 | 송은경 |
| | 연극아 놀자 | 변주희 |
| | 창의 통통 생각 쑥쑥 손가락 놀이터(종이접기 & 토탈공예) | 손가락놀이터 |
| | 덩덕쿵 우리가락 | 어울림공연 |
| 서울신도초 | ‘Math Craft’ 수학 속 공예 세상 | 박혜림 |
| | 낭독연극하기 | 배희진 |
| | 꿈지락 토탈공예 | 꿈지락 토탈공예 |
| | 토탈미술 | 마미공예(신성희) |
| | 밝은 인성 키우는 책놀이 | 남정은 |
| | 창의 통통 생각 쑥쑥 손가락 놀이터(종이접기 & 토탈공예) | 손가락놀이터 |
| 서울신사초 | 소고치며 춤추며 열쑂 | 예술꽃씨앗들의몸짓 |
| | 방송댄스(or 에어댄스)와 성장프로그램 | KTOPDANCE |
| | 성장테라피요가&명상 | 김선주 |
| | 키가 쑥쑥! 신나는 음악줄넘기 하나, 둘, 셋, 넷 | 황규원 |
| | 알기쉬운기초바느질 | 정민한즈 |
| | 밴드스트레칭 & 요가 | 윤미숙 |
| 서울어울초 | 마을 숲, 오감을 깨우는 자연놀이터 | 물푸레생태교육센터 |
| | 마을 나들이 | 유갑순(항림마을 도시재생 해설사) |
| | 캘리그라피와 먹그림,수채 일러스트 | 김선 |
| | 흙으로 꿈을 빛다 -도자기공예- | 토몽 |
| | 방송댄스(or 에어댄스)와 성장프로그램 | KTOPDANCE |
| | 체험 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 협동조합 청청 |
| | 다양한 카페 메뉴 만들기 및 바리스타 체험 활동 | 카페원 코퍼레이션 |
| | MusicTalk(뮤직톡) | 최나리 |
| 서울역촌초 | 은평구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토탈 공예’ | 공예사랑 |
| | 소고치며 춤추며 열쑂 | 예술꽃씨앗들의몸짓 |
| 서울연광초 | B.T.S.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Board/Traditional game/Stacking) | 노는엄마협동조합 |
| | 꿈지락 토탈공예 | 꿈지락 토탈공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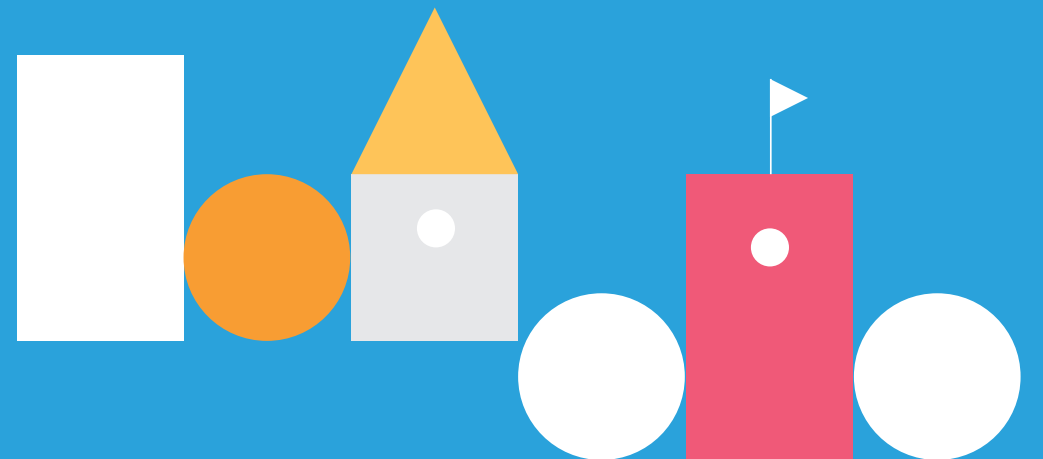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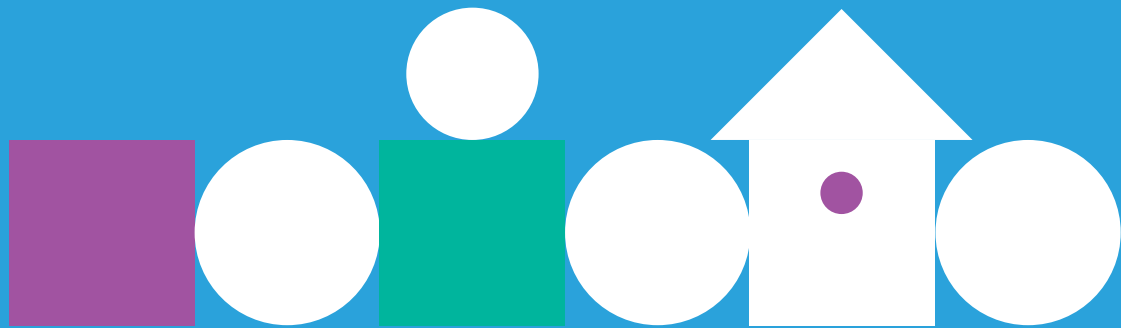
| 학교명 | 프로그램명 | 단체(개인)명 |
|--------|--|------------|
| 서울연광초 | 창의 미술 | 김정은 |
| | 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 에코맘협동조합 |
| | 리듬 스트레칭 & 댄스 | 최희성 |
| 서울연신초 | 도전! 콘텐츠 크리에이터 | 베타라이프 |
| | 꿈지락 토탈공예 | 꿈지락 토탈공예 |
| | 창의 통통 생각 쓱쓱 손가락 놀이터(종이공예 & 토탈공예) | 손가락놀이터 |
| 서울연천초 | 기초부터 배우는 블록코딩 (엔트리) | 김윤월 |
| | 표현미술 | 이윤경 |
| | 리듬 스트레칭&댄스 | 최희성 |
| | 생각이 자라는 책놀이 | 김연정 |
| | 밴드스트레칭 & 요가 | 윤미숙 |
| 서울은명초 | 신나게 DO! 자존감 UP! - 보드 & 컵쌓기 | 메타인지센터 |
| | 리듬 스트레칭 & 댄스 | 최희성 |
| | 편편아트 | 이정혜 |
| 서울은빛초 | 행복한 연극 교실 | 수이앤엠 |
| | 뿌리찾기 | 김현숙 |
| 서울은진초 | 성장테라피요가&명상 | 김선주 |
| | 신나게 DO! 자존감 UP! - 보드 & 컵쌓기 | 메타인지센터 |
| | 연극아 놀자 | 변주희 |
| | 밴드스트레칭 & 요가 | 윤미숙 |
| 서울은평초 | B.T.S.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Board/Traditional game/Stacking) | 노는엄마협동조합 |
| | 실전 캘리그래피 | 이은경 |
| | 목공놀이터 | 문윤숙 |
| | 나만의 천연공예품 만들기 | 함께하는여성협동조합 |
| 서울응암초 | B.T.S.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Board/Traditional game/Stacking) | 노는엄마협동조합 |
| | 꿈을 켜는 나무 (목공) | 이수희 |
| | 감성글씨캘리그래피 | 예미담 |
| 서울증산초 | 흙으로 꿈을 빛다 -도자기공예- | 토몽 |
| 서울진관초 | 흙으로 꿈을 빛다 -도자기공예- | 토몽 |
| 선일초 | 수학운동회와 미술과학의 만남 | 에듀통협동조합 |
| | 세계문학 명작단편을 하브루타로 놀아보자 | 배영복 |
| 충암초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코 조물락 팡팡 | 교육앤핸즈협동조합 |
| | 반.세.기(반전세계문화기행) | 김미정 |
| | 내 맘대로 DIY 목공교실 | 아이목수공방 |
| | 진로 JOB GO! 보드 JOB GO! | 송연희 |
| | 목공놀이터 | 문윤숙 |
| 은평대영학교 | 방송댄스(or 에어댄스)와 성장프로그램 | KTOPDANCE |
| | 빈티지 가족 소품 공예 | 박유신 |
| | 나도 도예가(내가 만들어보는 도자기) | 스프링샤인 |
| | 둠칫! 두둠칫! 카훗으로 스트레스 팡팡! | 재즈컴퍼니 |

| 학교명 | 프로그램명 | 단체(개인)명 |
|------|--|-----------------|
| 구산중 | 인성 디자인으로 내 삶을 찾다. |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
| | 캘리그래피와 먹그림, 수채 일러스트 | 김선 |
| | 방송댄스(or 에어댄스)와 성장프로그램 | KTOPDANCE |
| 대성중 | 어쿠스틱밴드 신나는섬과 떠나는 세계음악일주, 신나는 여행가방 | 신나는섬 |
| | 일상을 바꾸는 긍정 인문학 콘서트 | 올더콘서트 |
| | 나도 3D펜 디자이너! | 힐링하우스 |
| | 홈즈추리클럽 | 한국추리교육협회 |
| 덕산중 | 목공놀이터 | 문윤숙 |
| | 홈즈추리클럽 | 한국추리교육협회 |
| | 과학아 놀자 | 한은주 |
| | 나만의 천연공예품 만들기 | 함께하는여성협동조합 |
| | 3D pen과 코딩봇으로 표현하는 미래의 나의모습 | 양지애 |
| 불광중 | 사진!! 디지털&아날로그(나만의 사진엽서 만들기) | 노민희 |
| | 한 학기 한 책 읽기(온책읽기)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
| |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락 열쑈! | 정종숙 |
| | 은평구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토탈 공예’ | 공예사랑 |
| 상신중 | 체험 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 협동조합 청청 |
| | 블록코딩으로 앱만들기(앱인벤터) | 김인정 |
| | 사진!! 디지털&아날로그(나만의 사진엽서 만들기) | 노민희 |
| | 밴드스트레칭 & 요가 | 윤미숙 |
| 선일여중 | ‘같이’의 가치를 위한 예술 공감 프로그램 | 크로스웨이브기획 |
| | “비보이와 함께하는 춤 여행” | |
| | 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 에코맘협동조합 |
| | 낭독연극하기 | 배희진 |
| | 어서와! 3D펜은 처음이지? | 박신영 |
| 선정중 | 방송댄스(or 에어댄스)와 성장프로그램 | KTOPDANCE |
| | 감성글씨캘리그래피 | 예미담 |
| | B.T.S.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Board/Traditional game/Stacking) | 노는엄마협동조합 |
| 송실중 | 반.세.기(반전세계문화기행) | 김미정 |
| | 체험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 | 협동조합 청청 |
| | 건축 디자인 | 김민지 |
| | 심폐소생술 및 학교안전교육 - 생명을 살리는 손 | 한국재난안전연구소 |
| | 진로 JOB GO! 보드 JOB GO! | 송연희 |
| 신도중 | 배우를 통한 배움, Do!Dream! 두드림 진로콘서트 | 흥에듀테인먼트 |
| | 캘리그래피 먹과의 만남 아름다운 서체 | 한국나비아트스쿨문화원 |
| 연서중 | 도전! 콘텐츠 크리에이터 | 베타라이프 |
| | 나무에 그리는 뜨거운 그림 우드버닝(인두화) | 강소영(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
| | 우리궁궐이야기 | 박은영 |
| | 감성글씨 캘리그래피 | 예미담 |
| 연신중 | 그림책과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 어서와~ 이런 학교는 처음이지? | 박현주 |
| | 뮤지컬 배우와 함께하는 '유쾌한 뮤지컬' | 공연기획 ASK |

| 학교명 | 프로그램명 | 단체(개인)명 |
|----------|---|--------------------|
| 연천중 | 코딩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 오상희 |
| | 몸튼튼! 마음튼튼! 뇌튼튼! 행복놀이!!! | 박수인 |
| | 도전 콘텐츠 크리에이터 | 베테라이프 |
| | 뉴욕 브롱스의 박물관 | 민사이드 |
| | 다양한 카페 메뉴 만들기 및 바리스타 체험 활동 | 카페원 코퍼레이션 |
| 영락중 | 창의쑥쑥! 미술공예 | 어나더메이크 |
| | 지구를 지켜라! 과학어벤저스 | 과학마당 |
| | 꽃과 정원 | 화스라 |
| | 홈즈추리클럽 | 한국추리교육협회 |
| 예일여중 |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 아미드빵 |
|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뮤지컬<드림 인 더 스쿨> | U컴파니아 |
| | 천연재료를 이용한 피부관리법과 화장품 만들기 | 이시스 |
| 은평중 |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 아미드빵 |
| | 캘리그래피 먹과의 만남 아름다운 서체 | 한국나비아트스쿨문화원 |
| | 그림책과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 어서와~ 이런 학교는 처음이지? | 박현주 |
| | 사진!! 디지털&아날로그(나만의 사진엽서 만들기) | 노민희 |
| 증산중 | 도전! 콘텐츠 크리에이터 | 베테라이프 |
| | 동화 스토리 뮤지컬 | 최애영 |
| | 홈즈추리클럽 | 한국추리교육협회 |
| | 진로탐험대 _ 미니컴퍼니 창업대전(기업가정신) | 케이로드넘버원 |
| | 창의 통통 생각 쑥쑥 손가락 놀이터(종이접기 & 토탈공예) | 손가락놀이터 |
| 진관중 | 행복한 비폭력학교 만들기 | 한국평생교육상담협회 |
| | 감성글씨 캘리그래피 | 예미담 |
| 충암중 | 반.세.기(반전세계문화기행) | 김미정 |
| | 순국선열! 나의 별이 되다 | 대한민국순국선열 |
| | 컬러로 나타나는 마음은 | 박은선 |
| | 파워풀! 세계시민 | 드림온협동조합 |
| | 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 에코맘협동조합 |
| 대성고 |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콘텐츠 제작 | 꿈을잡다 Catch a dream |
| | 천문우주교실 | 동원교육 |
| | 진로탐험대 _ 미니컴퍼니 창업대전(기업가정신) | 케이로드넘버원 |
| 동명여고 | 일반고 분야별 지원 | 김현정 |
| 동명생활경영고 | B.T.S.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Board/Traditional game/Stacking) | 노는엄마 협동조합 |
| | 자연물로 만드는 네추럴 생활소품과 업사이클링 | 수다쟁이 손가락 |
| | 일상을 바꾸는 긍정 인문학 콘서트 | 올더콘서트 |
| | 어서와~ 3D펜은 처음이지? | 박신영 |
| 선일여고 |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콘텐츠 제작 | 꿈을잡다 Catch a dream |
| | 학교신문 만들기과 자소서 쓰기 | 조재용 |
| 선일이미지니스고 | ‘같이’의 가치를 위한 예술 공감 프로그램 “비보이와 함께하는 춤 여행” | 크로스웨이브기획 |

| 학교명 | 프로그램명 | 단체(개인)명 |
|----------|----------------------------|-------------------------|
| 선일이미지니스고 | 방송댄스와 성장프로그램 | KTOPDANCE |
| |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익 만들기 | 아미드빵 |
| 선정고 | 심폐소생술 및 학교안전교육 - 생명을 살리는 손 | 한국재난안전연구소 |
| |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세계시민교육 | 마을무지개 |
| | 나도 디자이너 | 소망진로상담센터 |
| | 나무에 그리는 뜨거운 그림 우드버닝(인두화) | 강소영(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
| 선정국제관광고 | 맛과 멋으로 배우는 민속이야기 | 유진문화센터 |
| | 올바른 피부 건강 지키기와 기초 화장품 만들기 | 로하스협동조합 |
| | 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 에코맘협동조합 |
| 세명컴퓨터고 |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 | 조윤정(마을공동체“채”) |
| | 한지공예품 만들기 | 예지원 |
| 송실고 | 목공놀이터 | 문윤숙 |
| | 놀이하는 시민(그림책+놀이+인권) | 즐거운교육연구소 |
| | 3D프린팅을 이용한 나만의 제품 만들기 | 신윤경 |
| | 요리힐링 | 루비마로 |
| 신도고 |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 아미드빵 |
| | 꽃과 정원 | 화스라 |
| | 치유원예(내 마음에 식물 들이기) | 생태원예사업단푸른미래협동조합 |
| 예일디자인고 | 일상을 바꾸는 긍정 인문학 콘서트 | 올더콘서트 |
| | 덩덕쿵 우리가락 | 어울림공연 |
| 예일여고 | 일반고 분야별 지원 | 세븐큐뮤직아카데미(이민선) |
| 은평고 | 일반고 분야별 지원 | 한국콘텐츠통합교육협회(김은경) |
| 은평메디텍고 | 도전! 콘텐츠 크리에이터 | 베테라이프 |
| |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 아미드빵 |
| | 아트앳가드닝 - 집중력향상을 위한 손바닥정원 | 인울그린 |
| | 나무에 그리는 뜨거운 그림 우드버닝 (인두화) | 강소영(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
| 진관고 | 일반고 분야별 지원 | 놀이하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틱움 (박수영) |
| 충암고 | 놀이하는 시민(그림책+놀이+인권) | 즐거운교육연구소 |

마을,
2022년을
시작하다



‘마을교육에 대한 무한한 상상’ 가즈아

팬데믹의 위험에서도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이후 교콘)은 계속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이 등교수업, 온라인 수업 등 수시로 바뀌어도 교콘샘들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원격학습지원, 마을배움터, 전환기수업, 교육후견인제에 참여하고 방역활동까지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 첫해에는 교콘프로그램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등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했으면 하는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추며 다양한 상상과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콘프로그램의 진행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등교수업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1,2학년은 전면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학교 공간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염의 위험과 긴장은 많은 학생과 선생님을 지치게 했습니다. 전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지쳤으니깐요.

이 시기, 마을교콘은 더욱 빛났습니다.

교과목 진도 위주의 수업에 지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쉽고 응원이 필요했습니다. 111개 프로그램이 64개 학교에서 진행되었고 103,041명이 참여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학교 비용으로 추가 모집하였을땐 많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절실하다’ 며 신청해주셨습니다. 교과목지원에서 자유학년제, 창의체험,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학교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않을 때 가까이 있는 마을교육이 든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교콘샘들은 다양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응암초, 은명초, 은진초, 충암중에서 온라인 학습지원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돌봄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돌봄과 학습을 학교와 연계하여 지원했습니다. 바로 ‘은혁이와 함께 하는 원격수업’입니다. 20년에 마을공간에서 진행했다면 21년에는 학교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총 15명이 학교에서 거의 1년간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22년에는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학습지원도 교콘샘들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친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규모 대면으로 만나 쉽고 놀이를 진행하고 관계를 통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을배움터’에는 75명의 교콘샘이 참여하였습니다. 응암시장을 배움터 만들어낸 사례처럼 마을 구석구석이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1명과의 만남도 소중한 마을배움터, 400여명의 교콘샘이 400개의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길 희망합니다.

온 마을이 함께 한 아이를 위해(only) 삶의 등불을 밝혀주는(light on) 선생님인 교육후견인제 사업에도 교콘샘이 참여했습니다. 8명의 강사분들이 24명의 학생을 317회 만났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이웃으로 교육 및 학습복지를 매개로 학생을 만나는 교육후견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평

에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교콘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봐왔기에 맘도 시간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 좋은 어른이구나’를 느꼈다는 온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전환의 시기,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가는 시기는 몸과 맘이 바뀌는 전환기입니다. 그 시기에도 교콘샘이 함께 했습니다. 35개 학교(초등18, 중등17) 281학급(초등 151, 중등 132) 6,980명이 참여하고 9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등교수업으로 지친 1,2학년들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의 교육력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을교육의 주역은 교콘샘들입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마을교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삶이 교육내용이 되고 그래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의 교육이 바로 마을교육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골목에서, 일상속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단단한 삶을 지원하며 우리들의 삶도 단단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모두 눈에 보이는 않지만 마을교육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콘텐츠연계사업, 교콘샘, 프로그램 진행자, 마을강사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마을교사의 존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은 ‘은평교콘’ 샘들의 이름은 ‘은샘’으로 네이밍화하여 학교 공간만이 아니라 학교의 배움이 마을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마을배움터가 활성화되어 마을이 배움의 공간이 되고 마을방과후 활성화로 개별 맞춤 배움이 일어나고 학교배움이 마을과 이어져 청소년동아리가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샘들의 다양한 연구, 취미동아리들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마을교육의 중심은 교콘샘입니다. 마을교육의 다양함은 교콘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 만들어 갑시다 이 모든 것을 마을방과후지원센터는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이웃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또 10년의 마을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교육을 소중히 여기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배움을 고민하는 학교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새로운 배움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교콘샘을 맞이해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계속 같이 만나서 함께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반드시 교콘샘을 만나게 될겁니다. 만나면 서로 응원합시다. 우린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이니깐요.

팬데믹을 견디며 살아낸 모두를 응원합니다.

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이미경** 드림

2022.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안내

사업 목적

마을 교육 자원 연계를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배움과 활동을 마을과 학교가 함께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명 2022.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 ♦ 지원대상 관내 초·중등·특수학교 67개교 및 유치원
- ♦ 운영방법
 - ① 공모를 통해 지역 사회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선정
 - ② 학교 신청을 통해 교육 과정에 맞는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연계
 - ③ 프로그램은 학교-마을강사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 후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준

| 구분 | 내용 |
|--------|--|
| 사업 분야 | 문화예술체육 / 진로체험활동 / 창의과학융합 / 인성심리정서 / 마을탐방 |
| 수업시간 | 유치원 30분 / 초등학교 40분 / 중학교 45분 / 고등학교 50분 동일학생 대상 1회기 최대 2교시 수업가능 (단, 부득이하게 3교시 이상 연속 수업시 사전 협의 필요) |
| 강사비 | 주강사 1교시 40,000원 / 보조강사 1교시 20,000원 |
| 재료비 | -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60%까지 편성 가능 -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은 단체/개인의 자부담으로 구입 (보드게임, 책, 요가매트 등 구입 불가) -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비는 예산에 포함될 수 없음 (시설 개보수 비용 등) - 간식비(사탕 등), 배송비 지원 불가 |
| 온라인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및 전환 가능, 영상으로 진행한 수업 회기 인정 * 학교-마을 강사 온라인 수업 매뉴얼 별도 제공 예정 |
| 학교 역할 | - 프로그램 선정 및 조율 후 학교 신청서 제출 * 2022년 학교 교육 계획 수립시 분야 제한 없이 선택 가능 (교과과정 연계, 방과 후 수업, 동아리, 자유학기(년)제, 전환기 등) - 수업 확인 및 출석부 작성 - 모니터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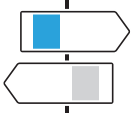
은평구 내 학교 **67**개
초 **30**개, 특수학교 **1**개
중 **18**개, 고 **18**개



2022년 선정 프로그램 **181**개
기존 **135**개, 신규 **46**개



문화예술체육 **96**개



진로체험활동 **34**개



인성심리정서 **22**개



창의과학융합 **24**개



마을탐방 **5**개

은평 마을하다 2021

발행인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이미경 발행처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기획·편집 박성원 디자인·제작 권순미디자인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50, 은평마을속학교(롯데몰 은평점 앞 승객대기동1)

대표전화 02-351-3099 팩스 02-305-1199 홈페이지 epafterschool.com 이메일 epeducon@daum.net